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주신 복음 증거의 사명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최우선 사명인 줄 알고 주님이 마지막으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부탁하신 말씀까지 복음전파에 생명을 거는 크리스천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 19-20)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주후 2014년 10월 11일 (토) 제 1504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중국 간섭 이제 그만” 불붙은 민주주의 운동!

지구촌 언론, 홍콩민주화 시위 원인과 배경 그리고 기독교인 참여 보도

현재 지구촌 최대의 이슈는 바로 홍콩의 민주화 시위 (Occupy Central with Love and Peace)다. 홍콩의 민주화 시위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의결한 2017년 홍콩 행정장관 선거안에 반대하며 정점에 오르는 했지만 시위의 근본적인 원인이나 시위에 참가하는 홍콩 시민, 학생들의 열정과 태도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대거 참여라는 다양성이 공존하기에 전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표면적인 이유로는, 이미 100년간 이루어진 영국의 통치에서 민주주의를 배운 홍콩 사람들에게 중국 전인대 주도의 홍콩 행정장관 선거라는 간접적인 선거 양식

에 대한 반감이 문제가 된다. 그러나 1997년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로 중국 정부 지도자들이 홍콩의 경제 인사와의 은밀하고 긴밀한 관계로 불평등 수치가 높아지면서 생겨난 반중국 감정이, 낮에는 학생들, 그리고 밤에는 직장인들이 시위에 참가하게 만든 배경이 됐다.

여기에 이례적으로 홍콩의 목사와 신학자, 기독교 학생 등 교계 인사들이 홍콩 민주화 운동 최전선에서 시위를 주도하고 있다. 따라서 전 세계 기독교인들도 이번 시위에 SNS와 블로그를 통해 지지와 기도로써 후원하고 있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지기 전, 홍콩에서는 지난 6월 4일 천안문 사태 추모식에도 수만 명이 참가해 민주화 시위를 벌였고 한 달 후 7월 1일에는 51만 명이 직접 선거를 요구하며 행진시위를 진행했다. 6월에는 약 80만 명의 홍콩인이 민주적 개혁을 위한 비공식 주민투표에 참가하기도 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최근 홍콩에서 반중국 감정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불만 뒤에 있는 실제 이유는 단순히 본토의 영향력보다는 시장 지배와 관련된 불평등에 있다”고 지난 7월 28일 보도한 바 있다.

홍콩의 불평등 수준은 악명이 높다. 가디언에 따르면, 지난해 홍콩 인구의 5분의 1에 달하는 130만 명이 빈곤선 아래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소득 분배 수준을 가리키는 지니계수는 0.53을 기록했다. 이 수치는 세계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가디언은 또 홍콩에서는 공공주택정책이 10년 이상 연기되었으며 약 48평 크기의 민영아파트는 100만 홍콩달러(약 10만 달러)에 달해 사람들의 감정은 거의 폭발 수준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역 정부가 소위 ‘재정집’으로 알려진 또는 참고를 개조한 비공식 주택을 생활공간으로 제공하면서 대중적인 분노가 쌓여왔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대중적인 분위기와 함께 홍콩 기독교인들의 대거 시위 참여가 이번 시위의 또 다른 특성이다. 다시 말해서 홍콩의 목사와 신학자, 기독교 학생 등 교계 인사들이 홍콩 민주화 운동 최전선에서 시위를 주도하고 있다.

(3면으로 계속)

아프리카크리스천들 서구 신학서적 선호

CT, ‘아프리카 리더십 연구’ 설문 조사결과 발표

아프리카 기독교 지도자들에게서 배우고 싶은가? 교회의 첫 수세기 동안에는 아우구스티누스, 키릴리아누스를 비롯한 아프리카 출신 신학자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 살아 있는 아프리카 저자들을 도서관이나 서점에서 찾아내기란 쉽지 않다. 그리고 크리스천티비투데이가 보도한다(Why It's Hard to Learn from African Christians: New research spotlights what the continent's believers (and those worldwide) are missing).

한국 웰빙지수 135개 국가 중 75위 45세이상 절반, ‘번영중’ 선택 안해

아프리카 대륙 3개국 8000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아프리카 그리스도인들도 아프리카인 저자가 쓴 기독교 도서를 읽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조사 결과를 담은 ‘아프리카 리더십 연구’에 의하면, 중앙 아프리카공화국인의 1/3, 케냐인의 1/2이 자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저자로 설교자나 목회자의 이름을 적었다. 앙골라와 케냐인의 다수도 기독교적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난 작품을 쓴 저자의 이름을 적었다. 아프리카 작가의 이름을 적은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다.

그러나 “그 두 가지가 겹치는 비율은 낮았다. 가장 좋아하는 저자가 아프리카인이자 그리스도인이라고 적은 응답자는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트리니티신학교 로버트 프리스트 국제연구 교수는 말했다. 프리스트 교수는 이 연구결과를 아프리카 선교학회에서 발표했다.

아프리카 저자의 인지도가 떨어지는 것은 케냐의 5개 주요 기독교 고등교육 기관의 장서에서도 입증됐다. 단 한 명의 아프리카 기독교 저자(존 음비티)만 이 도서관들의 서가에 꽂혀 있는 상위 15위 저자에 들어갔다. 케냐의 기독교 서점들은 도서관과는 다른 저자 목록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도 아프리카 저자는 한 명 뿐이었다(다그 휴어드-밀즈). 기타 서점들과 도서관대에서는 상위 15위 저자 목록에 아프리카 출신은 전혀 없었다.

이러한 현상의 한 가지 주된 이유는 수요가 없기 때문이다. 전 세계 복음주의자들의 38%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 거주하고 있지만,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책을 포함해서 서구에서 나온 것들을 더 우수한 것으로 여기고 있고 그런 것들을 구매하고 싶어 한다”고, 가나의 ‘호프 얼라이브 이니시어티브’ 집행위원 프란시스 부카치는 말했다.

(2면으로 계속)



홍콩에 대한 중국전인대 의결에 홍콩 시민들이 대규모 반대시위를 하고 있다.

도를 도입하자 홍콩 시민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다. 우리 손으로 직접 지도자를 뽑지 못하는 게 무슨 민주주의냐고, 이른바 우산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홍콩 시위대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국 지도부로서는 난감한 입장이다. 강경 대응하면 국제사회가 들고일어날 것이고, 유연하게 대응하면 시위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위가 본격적으로 불거

(3면으로 계속)



2면

미군 공습, 수니파-시아파 서로 다른 생각...



7면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정성구 박사(ICSC 원장)



16면

신앙의 본질회복을 통한... 전담수 목사 (알칸사 제자교회)



16면

인터뷰 조복섭 사모



남가주든든한교회

장로 · 안수집사 · 권사 임직식

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아래와 같이 장로 · 안수집사 · 권사 임직식을 갖고자 합니다. 바쁘신 중이라도 참석해 주시고 귀한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임직자]

장로

안수집사

안수집사

권사

권사

권사



최환경



방진광



최득규



광양순



홍선미



최금순

- 일시: 2014년 10월12일(주일) 오후 3시
- 장소: 남가주든든한교회
1645 Beverly Blvd, LA, CA 90026
- 문의: 213-481-2773

남가주든든한교회 김현인목사 외 교우 일동



시론

세방화(Glocalization)로 성육신적 사역(Incarnational Ministry)을 추구하라



최동진 목사 (샌디에고 반석장로교회)

Glocalization(세방화)이라는 말은 세계화를 뜻하는 Globalization과 현지화를 의미하는 Localization을 합친 말로, 원래 소니의 창업자 모리타 아키오가 만들어낸 경영학적 신조어이다. Globalization은 전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생산과 원재료 조달 및 판매활동을 최적의 장소에 배치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경영방식이며, Localization은 현지의 문화나 소비자 기호 등의 차이를 반영하여 생산, 마케팅, 연구개발 등의 활동들을 현지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실행하는 경영방식이다. 즉 이 둘을 합친 Glocalization이란 세계화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현지 국가, 혹은 현장의 기업풍토를 존중하는 경영방식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세계는 지금 무한경쟁시대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업은 물론 각 국가들 역시 자신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래서 김영삼 정부시절에는 세계화를 부르짖었다. 더불어 김대중 정부시절에는 인터넷과 멀티미디어 등의 정보통신기술 개발을 위해 광케이블을 설치하며 전세계를 하나의 망으로 연결시켰으며, 동시에 지방자치와 분권을 제도화 하고 지방정부의 특성을 활성화 하여 서로간의 국경을 없애고, 도시와 지방을 하나의 단일시장으로 형성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Glocalization전략을 강조하는 자들은 "사고와 전략은 Global하게 하되 행동과 운영은 Local(현지실정)을 반영하여 수정해야 함"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브랜드는 글로벌전략 하에 동일하게 하되 제품을 국가별 소비자 기호를 반영하여 제품의 색상이나 기능에 차이를 두게끔 하는 것을 의미했다.

맥도날드 역시 2006년에 사훈을 "Think Globally, Act Locally"라고 명명하면서 브랜드와 매장 인테리어, 색상 등을 동일하게 사용하되 햄버거의 원료인 패트는 각 고객의 기호를 반영하였다. 대표적으로 쇠고기를 먹지 않는 인도시장에 진출할 때에는 소고기 대신 양고기와 치킨을 사용하였으며, 채식주의자가 많은 시장 특성을 반영하여 채식버거를 개발하였다. 한편 남녀 구분이 확실한 사우디아라비아 권에서는 남녀 의자를 분리시킴으로써 소비자의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

LG전자 또한 Glocalization을 강조하면서 소비자의 기호를 반영한 제품개발과 더불어 해외법인의 중간 이상 관리자 중 현지인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현지인육성프로그램 등을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향후 국적과 인종을 불문한 인재확보와 활용전략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Glocalization은 21세기 기업들의 생존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 세계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현지국가의 기업풍토를 존중해야만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Glocalization은 비단 경영학적인 시장점유전략만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의 최고의 가치인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복음의 상황화를 추구하는 최고의 선교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수그리스도의 성육신(Incarnation)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신"(요3:16) 성자 하나님의 상황화이시며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세방화 선교전략이었다. 이를 깊이 깨달은 사도바울은 예수그리스도의 성육신사건을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종이 되어 십자가에 오르는 복종의 사건으로 소개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빌2:6-8)

예수그리스도의 종들이 증거해야 할 십자가 복음의 내용은 철저하게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속하지만, 이 십자가 복음이 지역사회에 적용해야 하는 선교적 전략은 철저하게 지역적 가치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이것을 선교학적 용어로는 성육신적 상황화(Incarnational Contextualization)라 부를 수 있지만 복음 전략적 의미로는 복음의 세방화(Glocalization)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성경적인 선교전략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동안 서방세계가 실패한 패권적 선교전략(Mission Imperialism)을 그대로 답습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더불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해야 할 하나님의 종들은 위대한 십자가 복음과 함께 철저하게 지역 문화에 성육화 되어가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딤후1:8) 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예수그리스도의 성육신적 사역(Incarnational Ministry)에 동참하는 진정한 선교전략이기 때문이라.

미군 공습, 수니파-시아파 서로 다른 생각...

WSJ, 이라크 IS 견제 공격에 대한 얽히고설킨 중동의 이해관계 보도

미국이 주도하는 시리아의 '이슬람국가(IS)' 공습으로 중동의 지도자들 사이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시리아 내전이 19만 명 이상을 희생시키고 500만 명 가까이 난민을 만들어내면서 이미 주변 경제적 타격을 입었지만 이제는 그 국가들이 군사적으로도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IS는 수니파 극단주의 테러단체지만 수니파가 인구의 다수인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카타르, 사우

디아라비아는 미국의 공습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라크와 레바논 헤즈볼라 같은 시아파가 다수인 단체와 국가들은 IS에 대한 공습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이처럼 얽히고 설킨 중동의 이해관계를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해준다(Airstrikes Against ISIS in Syria Supported By Sunni Arab States).

IS가 이라크 북부와 서부의 도시들을 점령하기 시작했을 때 이라크의 수니파는 미국의 재개입을 원치 않는다고 IB타임스에 말했다. 특히 아바르와 팔루자의 수니파 주민들은 누리 알-말리키 당시 이라크 총리보다는 IS의 통치를 받는 편이 더 낫다고 말했다. 미국이 이라크전으로 또 다른 압제자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미국의 재개입을 반대한다고 말한 사람이 많았다.

한편 시리아에서 미군의 무기를 공급받아 정부군과 싸우는 수니파 반군도 미군의 공습을 비난했다. IS가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IS를 무너뜨리기 위한 외국의 개입은 아사드 정권을 강화해줄 뿐이라는 논리였다.

미국 주도의 IS 공습은 이 지역에 인도주의적 위기를 심화시킬 게 뻔하다. 유엔의 구호 자금은 고

9월 23일 유엔 총회에 참석한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이런 공습은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군사적 침공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란은 IS에 반대하며 "극단주의와 싸우는 데 전념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지도자 사이예드 하산 나스랄라는 알-마나르 TV 연설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시리아 정권을 상대로 하든 IS를 상대로 하든 상관없이 시리아에 대한 미국의 군



이라크 시리아 시아파, 미군 재 개입 반대 수니파 다수지역 4개국, 미국 공습에 참여

사적 개입과 다국적군 규함에 반대한다. 우리가 볼 때는 미국이 테러리즘의 모태이며 근원이다." 이스라엘과 터키 등 이 지역의 다른 이해당사자들은 공습에 관해 명확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특히 터키는 공습 참여와 완강한 반대 사이를 오갔다.

시리아 정권은 자국 영토 내의 공습에 아직 공식 성명을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그 전에 시리아는 어떤 개입이라도 먼저 자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선언했다. 시리아 외무장관은 9월 23일 미국 정부로부터 사전에 공습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라크도 미군의 공습을 통보 받았다. IS가 수니파 무장단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수니파 다수 국가 중 공습에 반대한 나라는 없다. 그러나 미국이 공습하고 있는 이라크와 시리아 현지의 반응은 각각 사뭇 다르다.

팔되고 있고 요르단, 터키, 레바논, 이라크는 이미 내전을 피해 밀려닥친 시리아 난민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미국의 공습은 그런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 미군의 공습을 피해 탈출하는 시리아 난민들을 국제 구호단체들이 어떻게 도와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다.

〈1면에서 계속〉
랭험 파트너십 인터내셔널의 문학 프로그램 디렉터인 피터 크왈트도 이 점에 동의한다. "도서를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서구에서 나머지 세계로' 흘러들어가는 신학적 흐름이 존재한다"고 그는 말했다. 그러나 그는 "대다수의 세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질문들에 서구가 모두 대답해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여성 성기절제, 아내 상속(남편이 죽으면 형제나 친족 남자가 아내로 맞는 관습), 일부다 처제, 조상 숭배, 친족주의 같은 문제들은 서구 기독교 저자들이 거의 다루지 않는 것들이라고 부카치는 말한다.

프리스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프리카인들의 독서량은 미

국인들만큼 많다. 아프리카인 1/3이 지난 한 해 동안 6권 이상을 읽었다. 그러나 많은 아프리카 기독교 지도자들의 우선순위에 저술은 들지 않는다. 그들은 "말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부카치는 말한다.

프리스트는 특정 복음주의 선교단체들이 저술보다는 설교가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더 잘 성취한다는 생각을 퍼트렸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고전하고 있는 아프리카 출판산업도 아프리카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저술 활동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다. "마케팅과 배포 능력이 허약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저작들이 팔려나갈 것인지, 사람들이 그것들을 읽을 것인지 작가로서는 확인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그

는 말했다. 아프리카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가르치고 있으며 다른 아프리카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배우고 있다고, 우간다 캄팔라의 올 세인츠 성당 참사관 프란시스 오문디는 말한다. "(그러나) 수년 동안의

성찰과 경험, 학습의 대부분이 보존되거나 기록되지 않는다. 그래서 시대 상황에 맞는 지식이 아프리카 공동체에서는 보존되지 않고 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정영준 ■ 편집국장서리:유원정
·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 E-mail: la@chpress.net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 Fax:(718)886-0074(대표) · E-mail: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10월 31일까지 입학하시면

특별 장학혜택을 드립니다.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 ESL Program**
- Bachelor Degree Programs**
Bachelor of Religion in Theology (Concentrations in: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Bachelor of Religion in Music
Bachelor of Religion in Business Administration
- Master Degree Programs**
Master of Christian Counseling
Master of Christian Education
Master of Church Music
Master of Mission Languages in TESOL
Master of Divinity
- Doctoral Degree Programs**
Doctor of Ministry (Concentrations in: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Doctor of Church Music
Doctor of Christian Leadership

* 자세한 문의는 전화(636)327-4645 또는 이메일 usa@midwest.edu로 연락바랍니다.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Online 강의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위취득 가능

Blended 강의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위취득 가능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Site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571)730-4750 / Fax: (571)730-5751
E-mail: wdc@midwest.edu

홍콩행정장관 간접선거가 불씨

지구촌 언론, 홍콩민주화 시위 원인과 배경 그리고 기독교인 참여 보도

(1면에서 계속)

추 이우밍(70) 차이완침례교회 담임목사는 최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의 인터뷰에서 “감옥에 갈까 두렵고 공산당이 무섭지만 민주주의를 위해 대가를 치를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선거인단이 아닌 홍콩시민이 행정장관을 뽑는 것은 정당할 일”이라며, “왜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추 목사는 “(다음 세대를 위해) 사회적 장애물을 없애고 울퉁불퉁한 길을 다듬을 것”이라고 다짐한 뒤, “운명에 순응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된다”고 강조했다. 추 목사는 도심 점거시위를 주도하는 시민단체 ‘사랑과 평화로 센트럴을 점령하라(Occupy Central with Love and Peace)’의 공동 설립자로 중국과 홍콩 민주화를 위해 30년 이상 투신한 인물이다.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운동단체 ‘학민사조’의 조슈아 왕(18) 대표도 기독교인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홍콩 시위는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이제까지의 시위의 양상을 변화시키는 “정정 시위”라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생각해보자, 일단 대규모 시위의 모습을 떠올리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가. 흠뻑러지는 물대포, 날아다니는 최루탄, 울고 있는 아이들? 시위가 끝난 후는 어떤가. 여기저기 남겨진 선전용 찌라시, 굴러다니는 빈 물통과 누군가 같

으며, 이들은 자신들의 판단대로 행동하면서 상황 변화에 따라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처음 민주 선거에 대한 열망은 학자들과 학생들이 주축을 이룬 단체들을 통해 구체화했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처음 시위가 시작된 이후 홍콩 거리를 막은 것은 하나로 통일되지 않은 여러 목소리였다.

홍콩 휴먼라이츠워치의 연구원인 마야 원은 “이번 시위의 강점은

도에 신경 쓰는 것은 단순히 홍콩인들의 갈김함을 반영하는 것이 상이라고 시위대들은 설명한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돕던 의대생 찬 사우-칭(21)은 “우리는 이 시위에서 우리의 시민의식과 민주적인 정부를 갖고 싶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싶다”라면서 “이런 청소는 작은 일이지만 모든 홍콩시민이 가져야 하는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홍콩 시위는 지도부 없이도 시위대들은 스마트폰과 온라인을 통해 시위를 꾸려나가고 있다.

모바일 메신저인 왓츠앱(Whatsapp)을 통해 시위 지역 주변에 설치된 응급치료시설에서 구할 인력이 모였다고, 페이스북 페이지와 구글 문서를 통해 과자, 생수, 마스크, 우산 등 시위에 필요한 용품 목록을 올려 구호품을 모으고 있다.

또 트위터와 사진공유 애플리케이션인 인스타그램에는 이번 시위를 상징하는 우산 사진과 시위 지지 메시지가 속속 올라오고 있다.



원로칼럼



박중순 목사 (중신교회 원로)

사람됨

LG경제연구원이 밝힌 ‘이런 사람이 불량 직원’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일곱 가지 유형으로 대별된다. 첫째, 회사 경영, 동료, 상사 등에 대해 습관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는 항상불만형. 둘째, 현재 몸담고 있는 회사에는 마음이 없고 더 전망 좋은 직장이나 자신에게 잘 맞는 직장이 발견될 때까지 머무는 임시체류형. 셋째, 능력은 있지만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르는 유아독존형. 넷째, 언제 어디서나 마찰, 갈등, 위험 부담을 안지 않으려고 회피하는 마찰 회피형. 다섯째, 언제 어디서나 만든 결과를 가로채는 무인승차형. 일곱째, 한 방에 끝난다는 생각으로 매사를 결정하는 흥분타자형 등이다.

직장생활은 곧 사회생활이다. 그가 속한 사회생활을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사람됨이 드러난다. 사람의 얼굴과 생김이 각양각색 사람됨이나 사회 적응 태도도 다양하다.

문제는 그의 사람됨을 인하여 그가 속한 공동체가 안정될 수도 있고 뒤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말 한 마디와 행동 하나가 공동체를 사르는 불씨가 될 수도 있고 세우고 지키는 건축 자재가 될 수도 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사람됨에서 비롯된다.

사람됨이란 여러 가지 경로로 드러난다. 사고, 가치관, 언어 표현, 그리고 행동 등을 통해 드러나지만 특히 일상적이고 상투적인 언어를 통해 드러나게 마련이다.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언어,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언어는 평소 그의 인격과 축적된 감정의 분출이어서 속일 수가 없다. 그런 사람들은 평소 잘 참는 듯 하다가도 일단 감정의 발동이 걸리기 시작하면 자체 능력을 상실하고 좌충우돌하는가 하면 덤비고 활췌게 된다.

명작이 일조일석에 완성될 수 없는 것처럼 사람됨 역시 하루 아침에 이룩될 수 없다. 품성이란 선천적 요인과 후천적 노력에 의해 성립된다. 인격 역시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이 복합해 형성되기 때문에 타고난 바탕 위에 터를 닦고 집을 짓는 노력이 요청된다.

고 한경직 목사의 “사람 될 뉘 경우는 성령도 힘드시다”라는 유희이 생각난다. 왜 그런 말을 남겼을까? 길고긴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을 대면하다가 터득한 인생 경험이었을 것, 임상 경험이었을 것이다. 사람됨을 바로 잡고, 세우는 것이 얼마나 고된 직업인가를 짐작하게 해준다.

“기질은 변화될 수 있는가”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다. 베드로는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최측근에서 훈련받고 섬김을 다한 인물이었지만, 그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선천적 기질은 그대로였다는 것이다. 단 그는 자신의 성격대로 주를 섬겼고, 사명을 수행했으며, 결국 성격대로 십자가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타고난 그 기질이 어떤 용도로 쓰임 받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생사란 성공과 실패가 있게 마련이지 만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가늠된다. 자신이 내린 결정이나 결론에 대한 책임은 항상 자신의 몫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 교인다운 교인이 되는 것,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시위대 분권화, 지도부 없지만 질서정연 예의 바르게 평화적으로 진행 홍콩인구 5분의 1이 빈곤선 아래서 생활, 중국당국의 종교규제도 원인

지난달 26일 시위에 학생 1200명을 동원해 체포했다가 이를 만에 풀려났다. 최근 시위에서 경찰의 최루탄과 최루탄 가스를 우산으로 버티낸 ‘우산 혁명’을 주도한 인물이다. 원은 미 방송 CNN과 인터뷰에서 “모든 싸움을 마지막 것처럼 생각해야 한다”며 “그래야 민주주의를 쟁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독교 신학자 로즈 우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은 어떤 의미에서 정치적 사건”이라며, “정치 자유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자”고 말했다고 전례된 홍콩 대주교는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라며 시위 참여를 독려했다고 영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홍콩 기독교인 민주화 운동에 적극적인 것에 대해 중국 당국의 종교 규제가 주된 이유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홍콩시립대 조셉 정 정치학 교수는 “기독교인들은 무신론 성향이 강한 정부에 대해 불신이 강하다”며, “물질보다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기독교인의 성향이 민주화 운동에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 앉았던 종이박스? 평화적 집회든 폭력적 시위든, 사람이 많이 모인 후에는 쓰레기가 남겨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세계인들을 놀라게 만든 시위가 있다. 바로 홍콩 민주화 시위다.

홍콩 민주화 시위가 장기화되면서 민주화 시위의 여러 가지 모습을 목격했다. 시민들을 향해 최루탄을 날리는 경찰들, 길 가득 펼쳐진 우산, 피 흘리는 시위대, 얼굴을 감싸 쥐고 주저앉은 사람들. 하지만 이런 무질서한 그림 뒤에는 민주시민으로서 질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천안문 사태 이후 중국 정부가 맞이한 가장 심각한 문제, 8일째 계속된 대규모 시위. 홍콩 민주화 시위에 불은 별칭이 무색하게도 깨끗하게 정돈된 홍콩 거리. 그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홍콩의 민주화 요구 시위는 뚜렷한 지도자가 없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 점이 오히려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일 분석했다.

이번 시위는 대부분 어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해 진행하고 있

분권화됐다는 점”이라면서, “따라서 지도자를 체포하는 것으로는 이들을 진압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지도부가 없지만 시위는 매우 질서정연하고 예의 바르게 평화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낮에는 대학생들과 은퇴자들, 시위에 동조하는 상사로부터 휴가를 받은 중산층 사무직 노동자들이 시위에 참여한다. 저녁이 되면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인적 구성이 복잡해진다.

학생들은 거리에서 숙제하기도 하고 밤에는 스티로폼이나 신문을 덮고 노숙을 하지만 아침에는 샤워하러 집에 돌아가기도 한다. TV 화면에 아직 시위대 규모가 줄어들지 않았음을 보여주기 위해 아침에 나오는 이들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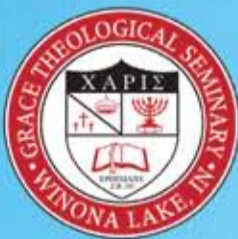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는 빌리 찬(21)은 아침에 집에 가면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보통 시민이라는 것을 보여주려면 깨끗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라는 안내문을 내걸거나 쓰레기를 분리수거 하는 등 위생과 좋은 태

결국 홍콩에서 점점 확대되고 있는 시위와 지도부가 없이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은 바로 홍콩의 민주주의 운동이 일대 전환점을 맞았음을 보여준다. 지난 수년간 홍콩 시민들은 자치 정부를 허용하도록 중국정부를 설득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감에 중국과의 직접 충돌을 피해왔다. 하지만 이제 홍콩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쟁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것을 요구하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자치정부를 쟁취하기 위한 홍콩의 투쟁이 지닌 의의는 수 십년간 자유의 상징이었던 인구 720만의 도시국가 홍콩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주권반환 당시 많은 이들은 중국이 홍콩의 성공을 모델로 삼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다. 하지만 오히려 중국은 홍콩이 자치를 향한 열원을 조금만 비쳐도 중국 정권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해 탄압한다. 홍콩의 민주주의 운동가들에게는 전 세계의 관심이 필요하다. 특히 기독교인들의 기도를 통한 중보가 절실한 때이기도 하다.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GRACE THEOLOGICAL SEMINARY

1. 76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3.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 모집 과정 ● 목회학 박사과정(D.Min.)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On Campus Courses

2014 가을학기 수업 안내

- Sept 29-Oct 3(9월 29 -10 월3일)
DI 8150 Contextualization for Meaningful Ministry
(의미있는 사역을 위한 상황화)
- Oct 6-10 (10월 6-10일)
DI 8170 Methods of Social Research / Research Design
(사회조사방법론/리서치 디자인)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로마한인교회)



기독교 박해자(9)-데키우스 발레리아누스 황제

기독교 역사를 보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언제나 피를 드러야만 했다. 진리는 항상 그 가치를 깨닫는 사람들에게 선택을 요구했

고 그 선택은 생명을 희생하는 것으로 귀결되곤 했다. 세상은 어두움의 세력이었기에 진리를 지키려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앞

로도 계속 죽일 것이다. 그렇다면 복음의 진리를 수습한 자들은 항상 피 흘릴 각오, 죽을 각오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서 인정받고 인기를 구가하는 길을 좋아할 때 진리는 훼손되고 신앙은 부패하게 됨을 역사는 증거한다.

이노센트 3세(1198-1216)는 당시의 교회의 부패상을 이렇게 지적했다. "파수꾼들은 모두가 눈멀고 깃을 수 없는 벙어리가 되었다. 그들은 선지자의 말처럼 인쇄하고 선물을 좋아하고 포상받기를 기뻐하고 뇌물을 받고 불경건한 자를 옹호하는 가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 복음의 가르침을 그릇되게 해석하여 왜곡하고 교회의

법을 어지럽힌다. 그러나 이단들의 기세는 높아지고 교회를 멸시하는 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영적으로 캄캄했던 중세나 오늘날도 비슷하지 않을 까 싶다.

데키우스 발레리아누스(Publius Licinius Valerius 200?-260), 그는 로마의 귀족 출신이다. 로마의 내전에서 승리한 아이밀리아누스를 굴복시키고 60대의 나이로 로마의 33대 황제가 되었다. 그는 집정관을 역임했고 학식과 분별력 그리고 경험에 풍부한 사람이었다. 황제가 된 후 방위선을 정비하고 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 한 사람의 훌륭한 지도자가 할 수 있는 엄청난 일들을 역사적으로 알았기 때문이다.

황제는 처음 3-4년 동안에는 기독교인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황실과 고위 관리직에 들어올 수 있었다. 그러나 황제들이 부하군인들에 의해 빈번하게 바뀌는 현실 때문에 고통스러워했다. 더구나 기독교인들은 아직도 군 복무나 국가 공직에 참여하기를 꺼려하는 상황이었기에 충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황제는 불안한 제국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부하들의 절대적 충성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부하들 가운데 누가 자신의 말에 충성하고 불충성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했다. 그는 황실과 정부 고위관리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을 색출하여 황제

의 명령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교회 감독의 명령을 따를 것인지를 선택하도록 강요했다. 그리고 교회를 따르는 자들을 처형하기로 했다.

황제는 결코 타협하지 않는 기독교도들을 향해 그들에게 관용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그들을 방치하게 되면 국가의 안년이 흔들리게 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황제는 드디어 AD258년에 기독교에 대한 처벌을 성문화했다. 즉 성직자들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사형에 처하도록 했다. 교회 집회를 금지했고 기독교 신앙을 가진 귀족들은 그들의 지위가 박탈되었고 재산을 몰수당했다. (14면으로 계속)

푸 / 른 / 초 / 장

강세대 목사
(프린스턴 한인교회)



비교하지 않는 것은 좋습니다. 비교하면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큰가 작은가, 넉넉한가 부족한가, 건강한가 건강한가 못한가, 평탄한가 고생스러운가...비교하면 참된 기쁨이나 만족이나 감사와 같은 행복을 빼앗깁니다. 그런데 마귀는 비교하도록 충동질합니다. 비교하도록 유혹하는 마귀의 탓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과 영광을 비교합니다. 18절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비교입니다. 세 구절에서 세 가지를 대조하여 비교합니다. 비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비교하지 말아야 할 것은 비교하지 않아야 하지만 비교해야 할 것, 비교함으로써 믿음 생활에 유익이 되는 것은 비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에는 속사람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성경은 "영의 사람"이라고 가르칩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여주시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 영의 사람은 결코 늙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생활은 나의 속사람이 더욱 힘차게 살아 활동하도록 말씀으로

땀겨 그런 환난들을 당하고도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우리에게 작고 큰 환난이 있을 때 마다 환난을 이겨낸 바울 사도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에 힘입어 이겨내는 것입니다.

바울의 승리의 비결은 비교입니다. 환난을 무엇으로 비교하는가요? "영광"입니다.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도록 고생만 했다. 그런 말을 듣습니다. 고생이 가져 온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고난이 유익하다"(시119:71)고 증거합니다. 고난이나 환난은 영광에 동참하게 하는 관문임을 가르쳐줍니다. 그 영광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큼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

알고 깨달을 때 사람은 더욱 값있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암이라는 환난을 겪고 있는 한 사람의 깨달음이었습니다.

"환난의 경한 것과 영광의 중한 것"입니다. "환난"입니다. 그가 거처한 암이 아닐지라도 우리에게도 환난이나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감사하는 것은 그 환난을 능히 이겨내는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입니다. 그 영광을 확신하고 믿고 바라볼 때 어떤 환난이나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보장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16:33). 환난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날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하려 함이라"(벧전1:7).

"내가 본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저자가 8일 동안 환상 중에 본 지옥과 천국을 소설 형식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 책은 "천국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을 일곱 개의 동산들을 본 것이라고 합니다. 기도의 동산, 섬김의 동산, 찬송의 동산, 구제의 동산, 눈물의 동산, 고난의 동산, 감사의 동산. 이 현세에서 성도가 실천한 기도, 섬김, 찬송, 구제, 눈물, 고난, 감사가 천국에서 그대로 쌓여서 동산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 일곱 개의 동산을 보면서 저자가 내린 결론입니다. 이 현세에서 주님을 위해 바쳐 드린 헌신과 정성과 수고의 작은 것까지도 주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며 무로해주시고 갚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분의 책의 내용이 성경적으로 옳은가 그런가, 그것을 따지기 전에 꼭 한 가지는 그분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천국과 지옥에서의 영원한 형편은 이 현세에서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살았는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이 현세에서 주님을 위해 당한 환난은 천국에서는 영원한 영광으로 바뀌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현세에서 어렵고 힘든 때, 기억하십시오, 이 고난은 잠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참차 받을 천국에서의 영광은 영원히 크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그렇게 믿고 확신하기에 낙심이나 피곤을 이기고 예수님의 기쁨과 평안으로 힘차게 전진해가도록 성령께서 주장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가벼운 고난, 크나큰 영광 (고린도후서 4 장 16-18절)

이 고기도 후후하며 전도하고 섬김으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영의 말씀을 먹지 않고 영적 호흡을 하지 않고 영적 운동을 하지 않기에 그 속사람이 맥을 못추는 것입니다. 그 영의 사람이 나의 마음과 인격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비교 "환난과 영광"입니다.

이 현세에는 환난, 곧 어려움이나 힘들거나 병들이나 나 실패가 있습니다. 이 현세에 환난이 없는 곳은 한 곳 뿐입니다. 무덤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곧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큰 교훈은 환난에 관한 것입니다.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를 성령님의 강동으로 기록한 바울 사도는 환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사람으로서 어

입니다. 그 영광에 비교할 때 이 현세에서의 환난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입니다. 장차 받을 영광과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잠시, 그리고 경한" 것입니다.

수년 전 한 사람의 죽음을 전 지구촌이 애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가 56살에 죽음을 맞이했기에 안타까워하는 마음도 큼니다. 그분에 대한 평가를 어떤 신문은 "세상을 바꾸고 떠나"라고 표현했습니다. 좀 과장된 말 같습니다. 그는 정보기술과 컴퓨터 분야에 획기적인 족적을 남긴 것만은 사실입니다. 2005년 서부의 명문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 연설에서 그가 한 말은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죽음은 사람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다." 웨장암 진단을 받은지 1년이 지난 후에 한 연설입니다. 죽음이 필연임을

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담대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승리의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주시고 반드시 도와주시기에 환난이 있을지라도, 환난이 아무리 클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의 비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생각이나 판단에 지배되어 삽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반드시 있다고 증거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천국은 반드시 있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롬8:18). "

사역자 청빙

조지아주 제2의 도시인 컬럼버스 반석장로교회에서 담임목사 29년의 목회 열매를 함께 추수하며, 25,614 S/F의 새 예배당으로 확장이전하면서 주님나라 확장을 꿈꾸실 두 사역자를 청빙합니다. 현재는 출석교인 310명(영어회중 40명 포함)이며, 아틀란타 공항에서 남쪽으로 90마일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인구는 32만명(한인인구 약 2천명)정도이며,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다운타운으로 선정된 전원의 도시이고, 대도시에 비하여 생활비 및 각종 보험비가 저렴합니다.

- 어린이 및 성인 교육담당 교육목사(전도사)
- 행정 및 은사팀들(찬양) 담당 부목사

* 두 사역자의 기본자격 *

- 1.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자기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자
- 2. 개인 경건의 시간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자
- 3. 동성애는 죄의 성향이기에, 동성애자를 치료받아야 할 자를 품는 자

자격요건 신학교 졸업 혹은 예정자(교육목사나 전도사는 기독교 교육 전공자 우대) 이중언어 사용자(교육목사나 전도사는 1st 영어, 2nd 한국어) 미국 체류 및 해외 여행에 문제가 없으신 분

제출서류 한글 및 영문 이력서 학위 증명서 및 성적 증명서 신앙고백 및 목회철학(한글과 영어) 추천서 1매(일부 불인 필수) 본인 및 가족 소개서(가족사진 1매 포함) PIF(Personal information form) Part 1 & 2 (download: <http://www.pcusa.org/resource/personal-information-form/>)

제출마감 2014년 10월 15일(수) Dr. Ha, Jong Wook (청빙위원회장 하종욱 장로) 5301 Sidney Simons Blvd. Columbus, GA 31904 TEL. 706-580-9667 Email: ha_jong@columbusstate.edu 교회 Website: www.rockpc.org

컬럼버스 반석장로교회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메릴랜드 볼티모어 외곽 엘리콧시티에 위치한 독립교회인 벨엘교회(Bethel Korean Presbyterian Church)에서 다음과 같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자 격

1. 복음주의적 개혁주의 신앙 노선을 따르는 장로교 목사.
2. 정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신 분으로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이상학위를 소지하신 분
3. 연령이 40세 ~ 50대 초반 이신 분
4. 3년 이상의 이민목회 경력(부목사 포함)을 포함하여 총 목회경력 5년 이상 되신 분 (미국 정규신학교 에서 공부하거나 가르친 기간을 이민목회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음)
5.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이 가능하신 분
6. 2중 언어(한국어/영어)사용에 불편이 없으신 분.

제출서류

1. 1차서류 • 이력서(한/영 각 1부)
• 자기 소개서(가족소개 포함)
• 최근 6개월 내 설교 2편(해당 CD/DVD 또는 website 주소 제출)
• 목사안수 증명서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2. 2차서류 •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하신 분께 개별 연락드림

서류 제출처 및 기간

1. 제출마감(도착기준) : 2014년 11월30일
2. 제 출 처 • 우편: 청빙위원회
Bethel Korean Presbyterian Church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 Email: psc@bethelchurch.org
3. 기 타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교회 웹사이트: www.bethelchurch.org.
4. 문의: 청빙위원장 이길용 장로 (443-889-9879)

벨엘교회

(Bethel Korean Presbyterian Church)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미래를 위해서 극복해야 할 세계적인 문제 중에 하나로 제시되는 것이 세대 차이이다. 세대차이는 서로 다른 세대 사이에 있는 감정이나 가치관의 차이를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세대간의 차이이지만 특히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있는 생각과 가치관의 차이를 의미한다. 세대란 무엇인가?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대를 표현한다. 사회학자들은 가족세대(family generation)와 문화적 세대(cultural generation)로 나눈다. 성경이 말하는 한 세대의 길이는 일반적으로 40년이라고 말할 수 있다. 1)먼저 가족세대는 어머니의 첫 자녀와 딸

차 세계대전 싸웠던 세대로 대공황 때에 어린아이들이었다. 4)Baby Boom Generation: 1946년-1964년에 태어난 사람들로서 2차 세계대전 후 출생한 세대로 출생률 증가시대이다. 많은 아이가 태어남으로 사회의 구조와 정책의 변경을 가지고 왔다. 5)Generation X: 1960년대-7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이다. 6)Generation Y: 1970년대부터 2000년대 초에 태어난 세대이다. 밀레니엄 세대, Millennials, Generation Next, Net Generation, Echo Boomers 등으로 불린다. 7)Generation Z: Generation I, 혹은 인터넷 세대라고 불리

예를 들어, 세대에 따라서 동성애의 합법적 결혼수용, 낙태허용, 마리아나 합법화 등 수많은 이슈들이 차이를 보인다. 정치적인 성향도 달라지기도 한다.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하지만 사회에 세대차이가 있어야 사회가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어떤 의미에서 세대차가 있다는 말은, 각 연령대가 자기들의 시대에서 성실하게 성숙하고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가 된다. 어린이는 어린이답고, 청년이 되면서 청년다워지고, 어른은 어른다워야 한다. 사람은 연령의 특성에 맞도록 성장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특정한 연령시기에 경험해야 할 문화를 놓치면 다시 그때로 되돌아가기 못하기 때문이다. 다양한 세대차가 있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하고 멘토(Mentor)가 필요하다. 핵가족화가 일어나기 전에 대가족제 속에서 서로를 보면서 배울 기회가 많았다. 성경이 말하는 세대에 대한 교훈

으로 아벨르 살인하게 하고, 그의 후손들을 죄악에 물들게 한다. 가인의 후예들은 죄와 죽음의 문명의 선구자가 된다. 살인의 문화가 꽃을 피운다. 따라서 세대차이는 방관할 일이 아니다. 특별히 세대차이가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세대차이가 이질감이 되고, 갈등이 되고, 분쟁이 되어, 분리까지 일어날 수 있다. 한 교회 안에서 한 권과 영영권이 한 비전을 가지고 오래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하는 것이 현재 많은 교회들의 고민이다. 세대차이의 현상은 사회 전반에서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다. 1)특별히 빠른 사회의 변화와 함께 젊은 세대와 기성 세대의 적응 능력이나 생활경험이 급속도로 달라지고 있다. 2)또한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청소년들이 부모보다 친구들이나 대중매체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특별히 이민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는 더 어렵다. 3)언어의 문제가 세대차이를 가속시킨다. 1



세대 차이의 극복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 김혜천 목사

의 첫 자녀 사이의 평균시간을 말한다. 현대화, 산업화, 서구화의 과정에 따라 차이가 난다. 이 차이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회적 변화에 따른 의식구조의 변화로 오는 결과이다.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과 생활 패턴의 변화에 따라서 여성의 임신이 연기되는 추세이다. 즉 세대의 길이가 길어진다. 요즘은 30년에 가까워졌다. 2008년 미국은 25년이었는데 이것은 1970년 이후 3.6년 증가된 것이다. 또한 독일은 24년에서 2008년에 30년으로 증가했다. 세대의 연장의 원인을 살펴보면 그 시대 사람들의 핵심 가치관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세대차이를 설명하기에는 한 세대가 30년이라는 것은 너무 길다는 생각이 든다. 그 사이에도 다양한 가치관들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요즘은 너무 세대가 급변하기 때문에 쌍둥이에게서도 세대차이를 느낀다는 농담이 나올 정도이다. 또한 문화적 세대(Cultural Generation)가 있다. 20세기 이후의 세대의 일반적인 구분은 먼저 1)Lost Generation: 1914년 즉 1차 세계대전에 싸웠던 사람들이고, 2)Great Generation: GI세대로 주로 1901년-1924년 사이에 태어나서 2차 세계대전을 싸우고, 경제대공황 겪었던 세대이다. 3)Silent Generation: 1925년-1945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로 아버지들이 1

은 매우 많다. 믿음의 조상들의 시대에는 대가족제도였다. 야곱의 가정은 여러 세대가 함께 살았다. 물론 가정에 문제도 많았고, 다툼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또한 배우는 것도 많았을 것이다. 하나님은 세대에 관심이 많으시다.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표현하셨다. 하나님은 여러 세대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신앙의 세대들을 세우기를 원하신다(신6:1-6). 모세를 이은 여호수아, 엘리야를 이은 엘리사는 모두 성공적인 신앙의 계승세대이다. 사도 바울도 신앙의 계승을 말한다. 디모데의 믿음의 뿌리를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와 디모데에 이르는 3대의 신앙을 아름답게 모범으로서 제시한다. 이것은 가족세대의 축복이다. 하지만 바울은 신앙적 세대계승을 말한다. 디모데 원리를 통해서 바울은 신앙의 4세대를 말한다. 바울과 디모데와 총성된 사람들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르는 신앙의 세대이다. 우리는 신앙의 4세대를 가져야 한다. 하나님의 뜻이 세대를 거둬들이면서 계속되고 발전되고 성취되는 것은 은총이다. 하지만 사단은 우리에게 파괴와 분리를 가져다준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타락시켰다. 사단은 죄가 가정에 들어오게 함으로 가정의 하나됨을 파괴시킨다. 가인

은 매우 많다. 믿음의 조상들의 시대에는 대가족제도였다. 야곱의 가정은 여러 세대가 함께 살았다. 물론 가정에 문제도 많았고, 다툼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또한 배우는 것도 많았을 것이다. 하나님은 세대에 관심이 많으시다.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표현하셨다. 하나님은 여러 세대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신앙의 세대들을 세우기를 원하신다(신6:1-6). 모세를 이은 여호수아, 엘리야를 이은 엘리사는 모두 성공적인 신앙의 계승세대이다. 사도 바울도 신앙의 계승을 말한다. 디모데의 믿음의 뿌리를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와 디모데에 이르는 3대의 신앙을 아름답게 모범으로서 제시한다. 이것은 가족세대의 축복이다. 하지만 바울은 신앙적 세대계승을 말한다. 디모데 원리를 통해서 바울은 신앙의 4세대를 말한다. 바울과 디모데와 총성된 사람들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르는 신앙의 세대이다. 우리는 신앙의 4세대를 가져야 한다. 하나님의 뜻이 세대를 거둬들이면서 계속되고 발전되고 성취되는 것은 은총이다. 하지만 사단은 우리에게 파괴와 분리를 가져다준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타락시켰다. 사단은 죄가 가정에 들어오게 함으로 가정의 하나됨을 파괴시킨다. 가인

은 매우 많다. 믿음의 조상들의 시대에는 대가족제도였다. 야곱의 가정은 여러 세대가 함께 살았다. 물론 가정에 문제도 많았고, 다툼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또한 배우는 것도 많았을 것이다. 하나님은 세대에 관심이 많으시다.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표현하셨다. 하나님은 여러 세대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신앙의 세대들을 세우기를 원하신다(신6:1-6). 모세를 이은 여호수아, 엘리야를 이은 엘리사는 모두 성공적인 신앙의 계승세대이다. 사도 바울도 신앙의 계승을 말한다. 디모데의 믿음의 뿌리를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와 디모데에 이르는 3대의 신앙을 아름답게 모범으로서 제시한다. 이것은 가족세대의 축복이다. 하지만 바울은 신앙적 세대계승을 말한다. 디모데 원리를 통해서 바울은 신앙의 4세대를 말한다. 바울과 디모데와 총성된 사람들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르는 신앙의 세대이다. 우리는 신앙의 4세대를 가져야 한다. 하나님의 뜻이 세대를 거둬들이면서 계속되고 발전되고 성취되는 것은 은총이다. 하지만 사단은 우리에게 파괴와 분리를 가져다준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타락시켰다. 사단은 죄가 가정에 들어오게 함으로 가정의 하나됨을 파괴시킨다. 가인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E-Mail: t1spc0316@gmail.com

Q: LA의 친구가 질문한 내용을 목사님께 여쭙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으로 복음서에는 주로 예수로, 바울 서신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혹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호칭은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요? -애틀란타에서 최의정 장로

A: 예수란 이름은 구약의 여호수아란 이름에서 온 것으로 '여호와와 구원이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주로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역사적인 예수를 가르치는 것으로 마1:21절에 잘 나옵니다. "아 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리고 그리스도란 말은 구약의 '메시아'라는 말로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늘로 승천하여 높임을 받으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로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 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부활 후에 높임 받으신 예수님을 예수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 예수로 부릅니다. 그러므로 부활 후에 높임 받으신 예수님의 호칭은 주와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와 주에 대해 좀 설명하겠습니다. 그리스도(Christ)란 명칭의 단어는 신약 신학적으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칭호로서 기름부음을 받은 자(The anointed one)라는 뜻입니다.

역사적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는 구원과 연결돼 사용

니다. 이것이 사용될 때는 항상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Salvation Event)과 함께 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란 단어가 나오는 곳은 대개 구원의 사건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꼭 수반되며 이 단어는 항상 믿음(Faith)이라는 말과 연결되어 사용됩니다. 고전15:3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주(Lord)란 단어 역시 예수께서 부활승천 후에 높임 받으신 예수의 명칭으로서 교회와 온 우주의 대권을 잡으신 주라는 것입니다. 이 주란 단어는 옛날 황제들을 신격화하여 퀴리오스(Kurios) 즉 주라 칭하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주라 칭하는 것을 거절하고 오직 예수그리스도만 주라 칭함으로 압박을 받았습니다. 주란 명칭의 특징은 첫째 부활하여 높임을 받은 자로서 하늘과 땅의 대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빌2:9-11 참고). 둘째, 종말론적인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고전16:22에 마라나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는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뜻인데 이 뜻은 재림 때에 오시는 분으로 묘사했을 뿐 아니라, 성만찬 상에서의 기도입니다. 성만찬 때에 그리고 예배 때에 오시라는 기도입니다. 셋째, 고난가운데서 승리를 주시는 분으로서의 주입니다(빌4:2). 영국의 성경신학자인 F. F. Bruce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과거 지상의 예수(The earthly Jesus)와 현재 천상의 예수(The heavenly Jesus)가 인격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지상의 예수는 실제로 육체적 죽음을 당했던 여자에게서 난 자였습니다. 그러나 부활 후의 그리스도는 여전히 사람이긴 하나 이 땅의 생활에서 지니는 인간성과는 다른 질서의 인간성 즉 천상적인 인간성을 지닌 것이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더 이상 살과 피를 지닌 몸으로 존재하지 않고 신령한 몸으로 존재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이 신령한 몸을 지니고 계셨는데 우리도 앞으로 그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것을 말했습니다(고전15:49, 빌3:21).

담임목사 청빙광고

아름다운 해변 도시 산타바바라에 위치한 산타바바라 한인장로교회는 설립 15주년을 맞이한 신앙공동체입니다. 선교와 전도의 꿈을 품고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며 지역사회와 차세대목회에 헌신하실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청빙요건

1.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소속에 가입되었거나 혹은 가입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2. 본교단이 인정하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담임목사, 혹은 부목사로 목회경력 5년이상인 분
3. 한영 이중언어가 가능하며 사역 감당에 신체 건강하신 분
4. 미국에서 목회하시는데 하자가 없으신 분

제출서류

1. 한글 영문 이력서 및 가족소개서(가족사진 첨부)
2. 신앙간증서와 목회계획서(목회동기, 목회철학, 목회비전)
3. 최종졸업증명서 및 학위 증명서, 목사안수 증명서
4. 최근6개월 이내 설교 두편CD 또는 동영상
5. 사역교회 후보 일개월분과 교회 홈페이지 주소
6. 추천서 (2인 이상)

접수마감: 11/ 08/ 2014

- 참고 사항 : 모든 서류는 이 메일로 제출해주시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처: e-mail : sbkpcbible@gmail.com
- 본교회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www.sbkpc.org)를 참조하십시오.

산타바바라 한인장로교회
청빙위원회

목회자 청빙

Valley 지역 North Hills에 위치한 밸리중앙장로교회는 39년의 전통을 가진 장로교회로서 말씀과 사랑으로 새로운 비전을 인도해 주실 담임 목사님을 다음과 같이 청빙합니다.

* 자격 *

1. 개혁장로교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M.Div) 이상 소지하신 분
2. Full Time 사역자로 담임목사 혹은 부목사로 목회 경력 5년 이상 교회를 섬기신 분
3. 합법적인 미국 체류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4. KAPC 교단에 가입할 수 있는 분

* 제출 서류 *

1. 이력서(가족 사진 첨부)
2. 목회 계획서(비전, 교회 운영계획 등)
3. 자기 소개서(목회 경험에 대한 세부 내용 포함)
4. 최근 설교 원고2편(CD가 아님)

* 접수 마감: 11/15/2014 까지

* 참고 사항 *

1.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하신 후보자들에게 2차 서류를 더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모든 서류는 PDF 파일로 만드셔서 반드시 E-mail 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 보내실 곳 *

E-mail: vkpc7@gmail.com
밸리중앙장로교회 청빙위원회 앞
Valley Korean Central Presbyterian Church
15204 Plummer St. North Hills, CA 91343

밸리중앙장로교회

증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부르키나파소의 도고시에(DOGHOSIE)



부르키나파소의 도고시에 족은 부르키나파소 불타갈 발원지에 사는 로바-알라족과 문화적 유사 종족이다. 이들 종족들은 삶의 모습, 종교적 신념, 역사 그리고 지형적 배경 등에 있어 거의 흡사하다. 단지 도고시에족은 Gur 언어계 통의 Gan-Dogose 방언인 도고시

에어(Dorhosye)로 불리는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 도고시에족은 이전에 블랙볼타강 동쪽, 가나에 거주했던 작은 종족이다. 그러나 18세기부터 강을 가로질러 부르키나파소 남중부 지역 현재의 거주 지역으로 이주하기 시작했다. 이 이주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더 나은 농지가 필요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기마 침입자들의 잦은 습격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강 유역에 거주하는 다른 종족 그룹들과 마찬가지로 도고시에족 역시 요새처럼 지어진 캠퍼운드에 사는데, 그들은

진흙이나 흙으로 편평한 지붕과 두 겹고 높은 벽들이 있는 장방형의 요새들을 짓는다. 도고시에족은 침입자들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독화살을 사용하기도 한다.

삶의 모습
도고시에족은 농지를 찾아 지속적으로 이주하는 농부들이다. 그들은 사탕수수, 수수, 조 뿐만 아니라, 암, 호박, 콩, 고추 그리고 다량의 쌀 등을 재배하며 수확의 일부, 특별히 수수발효음료(sorghum beer)를 시장에 내다 팔기도 한다. 대부분의 가족들이 소, 양, 염소 그리고 닭 등의 가축을 사육한다. 근래에는 품삯을 받을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남부 가나나 토크디부아르(아이보리코스트) 지역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다. 농장에서는 남자들이 대부분의 들일을 감당하며 여인들은 파종과 추수를 돕는다. 여자들은 집에 딸

린 채소밭을 가꾸고 숲속 부산물들을 쪼개거나 뿔감을 모으고 물을 길는 일을 하며, 가족의 끼니를 준비하고 맥주를 만든다. 집 짓는 일은 남녀가 함께 하는 일이다. 도고시에족은 몇 개의 캠퍼운드로 구성된 촌락들에 사는데, 거주지는 가족의 농지확보와 가축사육을 위해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다 큰 숲속 농장은 거주지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다. 어머니들은 어린이를 돌보며 아이가 걸을 때까지 모유 수유를 한다. 걸을 수 있을 만큼 자란 아이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 받아들여지고 합당한 장례 절차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순위 누이들은 걷기 시작한 동생들을 돌보준다. 어린 여자아이는 주로 캠퍼운드 주위에서 노는데 때로는 물을 길거나 곡물을 빻는 일로 어머니를 돕기도 하며 남자 아이들은 아버지를 도와 가족 때 돌보는 일을 돕는다.

이전에는 첫째 아이가 태어나자 결혼이 완전히 성립된 것으로 간주됐으며 그 때까지 남편과 아내는 함께 살지 않았다. 오늘날 도고시에족 가운데 일부는 이러한 전통적인 결혼관습을 따르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젊은 남녀들은 서로 눈이 맞으면 집을 나와 곧바로 남자의 집에서 부부로 함께 지낸다. 남녀가 결혼하면 캠퍼운드에는 새 신방이 꾸며지고 취사를 위한 아궁이들이 겹쳐서 준비된다. '가내 신전'에는 연중 다양한 의식들이 개최된다. 예를 들면 농사철의 막바지에는 춤을 추며 풍년을 축하한다. 가족들 가운데 출생, 결혼 그리고 장례 등과 연관된 의식들도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의식은 은밀한 사회의 일원이 되는 성년식을 중심으로 거행되는 것들이다.

대부분의 도고시에족은 전통적인 "정령숭배적" 신앙을 따른다. 그들은 타계한 조상들의 영과 더불어 자연의 기본 요소들의 영들을 함께 신봉하는데, 그 조상들은 집안의 대소사를 굿어 살피는 한편, 땅은 그들의 공동체를 보호하며 토양을 비옥하게 한다고 믿는다. 오늘날 도고시에족의 10% 가량이 무슬림이며 기독교인은 단지 5% 정도다.

필요로 하는 것들
2개 선교단체가 도고시에족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으나 그들의 언어로 제작된 전도용 자료는 전무하다. 보다 효과적으로 도고시에족 공동체를 복음으로 침투하기 위해서는 선교적 노력의 증대, 더 많은 일꾼들, 기독교방송국 그리고 전도용 문서들이 절실히 필요하다.

신앙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미 고법 "텍사스 낙태금지법 즉시 시행"

미국 연방고등법원이 텍사스주의 강력한 낙태 금지법에 손을 들어줬다. 뉴올리언스에 있는 제5연방고등법원은 2일 텍사스 주정부가 즉시 낙태금지법을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이에 따라 텍사스주 상원의원은 낙태시술을 허용해 낙태장비를 갖춘 병의원(Clinic) 13곳은 곧바로 문을 닫게 됐다. 이들 병의원이 문을 닫으면 가입기 여성 540만 명이 사는 텍사스에서 낙태시술을 할 수 있는 병의원은 8곳만 남는다. 법원은 낙태금지법 내 핵심적 부분의 합헌성을 고려해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텍사스주 상원의원은 임신 20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고 낙태 시기, 장소, 방법을 규제하는 낙태금지법을 통과시켰다. 리 페리 텍사스 주지사과 공화당원 등은 이 법안이 여성건강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1973년 미국 대법원 판결로 낙태가 합법화한지 40년 만에 여성 선택권을 제한하는 법이 등장하면서 미국 사회 전반에서 이와 관련한 공방이 이어졌다.

지난 5월에는 민주당의 유력 대선 출마 후보로 거명되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낙태지지 입장을 밝혔으며 세라 페일린 전 알래스카 주지사는 이를 정면 비판하기도 했다.

CA 공립학교, 도서관 내 '기독교서적' 제거

캘리포니아의 한 공립학교가 "주 당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에 특정 종교의 자료를 비치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기독교 서적을 금지했다고 크



리스천포스트가 지난 2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테메쿨라(California Temecula)에 위치한 스프링스카터학교는 기독교 작가의 책이나 기독교 출판사에서 나온 책들은 모두 제거했다. 이 가운데는 코리엔 북 여사의 '주는 나의 피난처(The Hiding Place)'도 포함돼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한 학부모의 항의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캐슬린 험스메이어(Kathleen Hermes-meyer) 캘리포니아 주 교육감은 "모든 '종교적인 자료'는 주에서 운영하는 공립학교와 맞지 않는다"면서 학교 측의 결정을 변호했다. 험스메이어 교육감은 "우리는 종교적인 교육 자료를 구매하지 않으며, 주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에 이러한 책들을 비치하도록 허용할 수 없다"면서 "주에서 운영하는 공립학교로서, 우리는 공적인 자금으로 구매가 허락된 책들만 선반에 비치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내 종교적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태평양법률협회(Pacific Justice Institute, PJI)는 학교 측에 금지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태평양법률협회는 "이번 조치는 개인의 종교적 권리를 인정한 '수정법안'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브래드 다커스(Brad Dacus) 회장은 "이는 학교 당국이 기독교 저자들의 책을 제거하려는 시도다. 서양 문명의 위대한 문헌은 대부분 믿음의 선조들에게서 나왔다. 학교 당국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의 설교와 연설도 금지하지 않겠는가? 자연법과 하나님의 법을 주장한 독립선언문은 어떠한가?"라면서 "이는 종교적인 관점을 제거하기 위한 심각한 움직임"이라고 했다.

이어 "스프링스카터학교가 즉각적으로 그들의 왜곡된 인식과 불합리적인 정책을 바꿀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험스메이어 교육감은 "학교 측은 결코 세속적인 교육 자료를 폐낸 기독교 작가 혹은 기독교 출판사를 차별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미 대법 "동성결혼..." 5개주 상고 각하

미국 연방 대법원은 6일 버지니아 주 등 미국 5

개 주가 동성결혼을 금지해 달라며 낸 상고를 각하했다.

대법원은 이날 별도 사유 없이 인디애나, 오클라호마, 유타, 버지니아, 위스콘신 주가 동성결혼 금지에 위헌이므로 이를 허용하라는 각 주의 항소법원 판결에 불복해 낸 상고를 심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에서는 소송 사건이 진행되면서 남성 간 또는 여성 간 동성결혼이 유효했으나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즉각 허용되게 됐다.



미국에서는 현재 19개 주와 워싱턴DC에서 동성결혼이 합법이지만 지난해 대법원이 연방 결혼보호법(DOMA·이성 간의 결합만 결혼으로 인정하고 동성커플은 배우자로 인정하지 않는 법률)에 대해 부분 위헌 결정을 내리고 나서 동성결혼을 금한 주에서 이를 허용하라는 판결이 속출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동성결혼이 위헌이라는 항소법원 판결이 나왔으나 아직 주 정부가 상고하지 않은 플로리다, 와이오밍, 캔자스, 웨스트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종전 19개 주와 이날 상고 각하 대상이 된 5개 주, 동성결혼이 위헌이라는 항소법원 판결이 내려진 6개 주 등 미국 내 30개 주와 워싱턴DC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됐다.

그러나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다른 지역에서도 동성커플에 의한 소송 등이 진행되면 같은 하급법원 판결과 연방 대법원 결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 전역에서 동성결혼이 허용된 것과 마찬가지다. 대법원은 그럼에도 미국 전역의 동성결혼 자체의 합헌성 여부는 아직 판단하지 않고 있다.

앞서 미국 대법원은 지난해 6월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이성 간 결합'이라고 규정하고 동성커플에 대해서는 연방이 각종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1996년 결혼보호법(DOMA)에 대해 평등권을 보장한 헌법에 어긋나므로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에도 대법원이 동성애 또는 동성결혼 합법화를 주장하는 집단에 손을 들어주기는 했지만, 동성결혼 자체에 대한 합헌성 판단은 유효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현안에 대해 최고 법원이 결론

을 회피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동성애자 인권 옹호 단체인 휴먼라이츠캠페인(HRC)은 이날 성명을 내고 "대법원 결정이 즉각 효력을 발휘하는 지역의 수천 동성 커플에게는 당장 합법적인 부부가 될 수 있는 아주 기쁜 날"이라고 환영했다. 이 단체는 그러면서 "여전히 많은 지역에서 결혼과 관련된 차별이 이뤄지고 있다"며 "유일한 해결책은 전국적인 결혼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서 가장 큰 교회는 노스포인트미니스트리

미국 아웃리치 매거진이 발표한 '2014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에 조지아 주 노스포인트미니스트리(담임 앤디 스탠리 목사)가 선정됐다. 이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뉴스프링교회(담임 페리 노블 목사), 텍사스 주 게이트웨이교회(담임 로버트 모리스 목사), 앨라배마 주 처치오브하이랜드(담임 크리스 핫지스 목사), 일리노이 주 윌로우크리크커뮤니티교회(담임 빌 하이벨스 목사) 등의 순이었다.



노스포인트미니스트리는 8개 캠퍼스에서 주일 평균 3만3천명 가량이 출석한다. 앤디 스탠리 목사는 아웃리치 매거진의 발표에 기쁨과 흥분을 나타내는 동시에, "우리는 이미 다음 세대 지도자를 기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스탠리 목사는 아웃리치 매거진에 기고한 글에서 "내 사무실 서재에 있는 책들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 하나는 알 라이즈의 책 '포커스'에 나온다. 그는 '다음 세대 상품들은 결코 이전 세대에서 나오지 않는다'며 '미래의 것들은 그들이 무엇이든 간에 미래의 세대들에 의해 창조될 것'이라고 한다"고 강조했다.

노스포인트미니스트리는 미래의 지도자들을 찾는 일을 시작했는데, 구체적으로는 30대에게 투자를 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의 지도자 그룹이 사역을 시작할 당시의 나이와 같다. 그는 "우리는 바둑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누가 가장 가장자리에서 (현재의) 규칙들을 만들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들에게 투자를 하려고 한다"고 했다.

Worldwide Church Directory: A grid of church listings across various US cities including Dallas, Denver, Salt Lake City, and others. Each listing includes the church name, pastor's name, and contact information.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51)



정성구 박사 | 한국칼빈주의연구원장, 종신대명예교수

카이퍼 목사의 설교내용(3)

카이퍼는 그의 메시지 중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Zoo Imand wil Zijn Wil) 이란 주제의 설교에서 교리와 행위 곧 이성과 신앙에 대한 조화를 강조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할 것을 힘주어 말했다. 특히 카이퍼는 이 메시지에서 교회사적인 예를 들어서 진지하게 설명하고 있다.

즉 "종교개혁이후 처음 즉 17세기는 삭막한 교리중심 시대였습니다. 그 후 18세기는 감성중심의 신앙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둘 다 만족 할만한 것이 못되었으므로 기독교는 위대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교리 설명을 경시하며, 감정주의에 반대하는 다른 극단과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즉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을 단지 의지의 활동 측면에서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 17세기의 빈틈없는 교리중심 신앙 시대는 프랑스 그리고 네

델란드가 주축이었습니다. 하지만 18세기의 감성주의 신앙시대는 독일과 프랑스의 감정주의자들에 의해서 주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19세기에는 주로 영국이 두각을 나타

인 열매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 특징으로는 남에게 선을 베풀 마음가짐, 헌신, 힘찬 신앙 등을 들 수 있는데, 이것들은 종교개혁 당시 이후 그때까지 사라졌던 현

상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편파적 열심은 그만 유감스런 결과를 자아내고 말았습니다. 즉 의지에 치우친 신앙은 처음부터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교리를 저버리고 선행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오류를 범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게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리 옮겨져 인간 안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들

분야 즉 신학이 하나님께 관한 지식을 목적으로 하여 그 역할을 잘 개척해 나갈 뿐 아니라 모든 분야의 학문이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끔 되어야 합니다. 학문이 아무리 완전하고 박식하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따로 떼어놓고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하거나 하나님을 부인하게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학문

이 불신앙적 단계에서 많은 희생적 자선활동을 벌이자 '선한 사랑의 복음'이 불신자들에게 더 가깝게 느끼게 되었습니다"라고 했다.

카이퍼는 선한 행위가 아무리 중요 하더라도 기독교가 행동만을 위주로 하고, 영생의 복음과 성경의 진리를 등한시 한데 대하여 비판하고 있다. 흔히 카이퍼를 일반 은총의 신학자로만 이해하고 있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카이퍼는 이성과 신앙, 그리고 경건과 학문, 그리고 생명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삶을 조화롭게 보려고 했다. 또 카이퍼는 기독교 신앙과 학문에 대한 메시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간의 학문 역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이 기독교 신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학문의 한

이 아니라 죄악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이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우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큰 계명을 거슬렀기 때문입니다"라고 했다.

카이퍼는 이 메시지에서서도 하나님 중심의 학문을 부르짖고 있다. 즉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인정하는 학문이라야 된다는 것이다. 카이퍼는 그의 모든 설교 중에서도 칼빈주의적 세계관과 성경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카이퍼는 여기에 덧붙여서 모든 인간은 자기의 분야 자기의 일터에서 소명을 가져야 함을 힘주어 말하고 있다. 이 또한 카이퍼가 제창한 칼빈주의자들의 소명(Roeping)을 강조한다. 세상은 버려진 땅이 아니라 소명의 일터라

하거나 조각가는 선교사나 자선가처럼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께 진실한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해야 합니다. ... 가정주부는 가정의 훈련된 부모, 또는 의지에서 여선교사처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성스런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 잘못된 이원론(Valsche dualisme)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타락시키는 것입니다"라고 했다. 여기서 카이퍼는 그의 메시지를 통해서 칼빈주의의 소명의식과 영역주권 사상에 대해서 대중들에게 명쾌히 해설했다.

끝으로 카이퍼의 설교의 개혁에 대한 그의 뜨거운 열정과 이론적 체계는 주로 1878년 5월 12일에서 1901년 6월 30일까지 De Heraut 지를 통해서 주장되었다. 실제로 카이퍼는 역사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설교를 통해서 화란교회 성도들에게 칼빈주의적 성경관과 칼빈주의적 세계관 그리고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소리높이 외쳤다. 1880년 화란 뿌라야대학을 설립할 때, 개혁교회의 분리를 선언할 때 등등 역사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말씀 선포의 설교를 통해서 역사와 교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어 갔다.

실제로 카이퍼는 칼빈 이후 3백년 만에 나타난 위대한 개혁자이다. 그런데 그의 재개혁(Gereformeerde)은 결국 강단에서 말씀을 통한 개혁에서 시작되었다.

(14면으로 계속)

16세기 개혁자 칼빈처럼 19세기 재개혁, 강단의 말씀 통해 시작 구원 받은 성도로 세상 변화시키며 하나님 나라 건설 방향 제시

칼럼 음악목회 (37)

또 하나의 지휘자 (8)

송규식 목사 | 차세대연구소소장



교회 안에서 행정과 목회 그리고 예배까지 교회의 모든 일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장로들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교인들이 뽑아 세운 리더들이기에 틀림없습니다. 장로의 직분과 역할에 대해 바른 인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장로의 직분은 목사와 더불어 영적인 리더로서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해야 하는데 영적인 사역보다는 교회정치에 관심이 더 많고 목회전반에 대한 참견이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음악목회에 관여하는 전문성이 없는 사견으로 음악사역자들에게 상처를 주고 음악목회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

실입니다. 제가 섬겼던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담임목사님은 오케스트라를 조직하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재정상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찬양대에서 편드를 모아 전공자 오케스트라 단원들에게 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찬양대원들이 3년씩 계속해서 교회오케스트라를 후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교회가 이제 맡아서 오케스트라를 경영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들은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봉사를 왜 돈을 받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장로님은 본인이 전공한 분야에 그 직업으로 돈을 벌어서 살지 않습니까? 음악을 전공한 사람은 음악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데 이 세상에는 클래식 음악이 필요한 직업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들은 음악을 위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적어도 집 2채 3채 값을 치우고 레슨 받고 대학 또는 대학원까지 졸업한 사람들입니다. 이 귀한 인재들을 지원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음악으로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신앙이 자라 더욱 하나님께 헌신할 것을 기대하며 후원해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악을 전공한

독창자들에 대한 사례도 찬양대원들이 편드를 모아 후원해왔습니다. 그것도 교회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교회음악목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음악사역자들의 사례비에 대한 것입니다. 왜 음악사역자가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느냐는 것이지요. 사례비 없이 봉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평신도들까지도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조직이 있고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신앙과 열심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렇지만 자녀교육과 음악사역 등은 전문성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특별히 음악종사자들에 대한 교회의 사례비 지원에 대한 근거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따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고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줄 때, 땅을 분배하지 않은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 지파는 레위지파입니다. 그들은 생업을 위

해 일하지 않고 오직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배)에 관련된 일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예배찬양을 위해 전무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지파 사람들이 땅에서 얻은 소산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로 생계를 이어가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지시하셨을까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음악 종사자들은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전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변질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보다 사람들이 원하는 일에 관심이 더 많고 물량주의로 빠져 교회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일보다 종교비즈니스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오늘날의 모든 음악의 기초를 놓은 음악의 아버지라 호칭하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 세바스찬 바하'입니다. 그는 평생 교회의 오르간이스트로, 작곡자요, 찬양대 지휘자요, 교회 음악장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두 부인

에게서 난 자녀가 13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다른 직업을 갖지 않았습니니다. 오직 교회만 봉사하였고 오직 교회음악에만 전무하였던 것입니다. 교회가 그와 그의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주었기 때문에 그는 음악사역에 전력을 다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의 평생의 업적으로 인하여 모든 음악의 기초를 세웠으며 불멸의 곡들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인류를 위해 얼마나 귀한 일이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받으신 살아 있는 제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오늘날 교회는 비전문성과 모양새만 갖춘 봉사라는 구실만을 내세우는 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가 인물을 키우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더 나아가 교회가 문화적으로 세상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교회문화를 발전시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싶어 하도록 전략적인 문화선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차세대연구소: (714)699-0210

한명철 목사의 저서

기도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기도 기도 기도

본서는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용사들을 모델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고 기도의 작은 불씨를 모아 큰 불을 일으키는 주역이 되게 할 것이다.

한명철 지음 / 336면 / 12,000원

숨겨진 신화



이 책은 <<인봉된 책>><<개봉된 책>> 요한계시록 주석을 요약해 평신도들도 읽을 수 있게 작업한 것으로 계시록의 말씀들을 목상하는 가운데 이 시대를 위한 주님의 메시지가 확연히 드러나고 잘 활용될 것이다.

한명철 지음 / 304면 / 12,000원

성경의 압축 파일을 풀어서



성경은 일일이 다 배경 설명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압축 파일과도 같다. 성경의 배경을 알면 그 압축 파일을 풀 수 있다. 이 책을 통해서 그동안 감추어져 있던 성경의 배경을 알게 되고 또한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이진희 지음 / 344면 / 13,000원

이스라엘 성지순례



주님과 함께 걷는 이스라엘 성지순례. 이스라엘 구약 역사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배경을 살펴보고 나사렛, 예인케렘, 베들레헴, 예수님 세례 받으신 곳과 공생애 사역지, 예루살렘, 기타 이스라엘 성지를 지도와 사진을 곁들였는데, 전문 사진작가 Lisa의 손길로 현장감을 더했다.

탁은숙 지음 / 328면 / 20,000원

인봉된 책 / 개봉된 책



요한계시록 주석- 한명철 지음 / 1-11장 / 672면 / 25,000원 12-22장 / 584면 / 23,000원

봉리의 신호음이 들릴 때

고난의 현실을 피하려 하지 않고 묵묵히 받아들이며 헤쳐 나온 성경 속 인물들의 삶을 깊이 목상하고 연구하여 그들의 실패와 재기를 통해 고난 극복의 지혜와 기술을 담았다.

한명철 지음 / 296면 / 13,000원

창조과학 칼럼 (207)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다 그의 손에 (16) 생육하고 번성하라

20세기 중엽 DNA 구조 발견으로 말미암아 유전학(genetics) 분야는 획기적인 발전이 있었고 인류는 의학이나 농업 분야에 그 지식을 사용해서 큰 혜택을 입고 있다. 그래서 유전학 혹은 유전자(gene)란 단어는 일반인들에게도 친근한 말이 되었다.

본격적인 유전학은 창조론자 멘델(Gregor Mendel, 1822-1884)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에는 부모의 유전형질을 섞어서 물려받는다거나 높은 곳에 있는 나뭇잎을 따먹으려고 목을 점점 늘리다가 오늘날의 기린이 되었다는 식의 라마르크(1744-1829)의 용불용설(用不用說)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멘델은 각 부모의 인자(지금은 유전자로 알려져 있음)가 독립적으로 그리고 조합되어 나타나는 사실을 실험으로 확인하였고 그의 실험결과는 지금도 인정되고 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떤 유전자도 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부모에게 있던 것이 후손에게 전해질 뿐이라는 것이다. 즉 '유전자 보존의 법칙'을 따

안술에 가져오지만 오직 그 암술은 같은 종류의 수술에만 반응하여 씨앗을 맺는다. 물고기도 물속에서 알을 낳고 정액을 뿌리지만 오직 같은 종류의 알과 정자만 반응하여 같은 종류의 물고기가 생겨난다. 새들도 육상동물도 마

식), 거의 모든 동물들과 꽃을 가진 식물들이 이 방법으로 번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식물들 중에는 난자나 정자의 개입 없이 새로운 개체들을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다(무성생식). 개나리처럼 꽃말이를 하거나 덩굴장미처럼

하는 모든 세포는 6000여년 전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된 각 종류의 생명체들의 세포가 성장하고 분열한 것일 뿐 전혀 새로운 생명체가 생겨나지 않는다. 서로 서로 피붙이들이고 살붙이들이고 이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생물들과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풍성하심을 볼 수 있다. 처음 종류대로 창조된 생명체들 외에 이례는 더 이상 다른 생명체들이 창조되지 않는다. 대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물질의 법칙에 따라 유전정보가 정확하게 복사되고 재조합되어 각 종류 안에서 생명을 이어감으로써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수행되고 있다. 이 과정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놀라움과 그보다 더 놀라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잠시나마 엿볼 수 있을 것이다.

6천여년 전 창조주께서 동물들과 식물들을 종류대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지금도 그

영성칼럼



이희녕 사모
(뉴저지복음장로교회)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너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줄 너희가 알지라"(출6:7).

교만한 바로와 역사의 흑독함으로 인해 더욱 완악해지는 백성들 사이에서 점점 절망을 느끼며 못하겠다 호소하는 모세입니다. 사람은 습관의 동물입니다. 태어나며 익숙해진 습관을 바꾸기란 천재지변이 아니면 모를까 쉽지 않습니다. 보고 듣는 것에 의존해 모든 상황을 판단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고통스런 상황이 갑자기 나타나서 전혀 상황을 바꿔주지도 않으며 하나님은 계속 약속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요구합니다. 진짜로 약속을 지키실지? 아니 지키실 능력이 있는 참 신인지? 도무지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시야에는 오직 고통스런 상황만이 확대되어 들어올 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도,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도 딱히 경험해 보지 못한 저들에게 빈 말은 통하지를 않습니다. 봐야 믿지... 믿음이 없기론 모세라고 또한 나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결코 믿어지지 않으나 힘든 일을 맡긴 하나님께 나아와 투정하는 것이 백성들보다 조금 낫다고 할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막연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막상 폭풍우가 몰아치니, 믿음이 뿌리 채 흔들리는 실제 모습이 나옵니다. 출애굽은 하계하시되 바로를 더욱 강박케 해서 이스라엘과 모세의 믿음을 테스트하며 다져나가십니다. 보는 것에 의지하는 믿음을 하나님의 인격을 믿고 따르는 긴밀한 신뢰 관계의 믿음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내가 원하는 요구하는 기복신앙에서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나의 최선임을 신뢰하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아직 그의 백성이 된 특권도, 여호와와 저들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 무엇인지 도무지 감을 잡지 못합니다. 그저 물러드는 어려움에 치여 하나님 바라볼 여유가 없습니다. 귀를 열어야 할 믿음에는 원망을 쏟고, 부추기는 상한 마음에는 불평의 칼날로 난도질을 해댑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지요. 염려중독에 빠진 자신이 자신에게 가장 큰 적입니다.

지도자 자신도 인도해야 할 백성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원망하는 백성도 바로를 움직이는 것도 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극한 상황 속에서 본래 자원한 것도 아니니 다 핼개치고 나 몰라라 달아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백성들의 불평스런 상황을 안고 주께 나아가 없던저 지금의 기막힌 형편을 낱알이 고평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관계로 온전히 전환하기까지 결코 고통스런 훈련의 손을 늦추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십니다. 극한 불가능한 상황을 통해야 겪어봐야 그 진가를 알게 됩니다. 수 없는 문제를 통해 하나님과도 잔정이 깊어져야 내가 진정한 그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바뀌는 출발점은 자신의 한계 속에서 솔직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서 시작됩니다.

저희의 어리석은 모습을 한스러워합니다. 그토록 기막힌 기적에서 기적으로 이끌어주시는 이제까지의 삶인데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너무나 험사리 무너지는 저 자신을 발견합니다. 아주 당연한 듯 자동적으로 좌절하는 저입니다. 주님을 안다하며 의지 대면 내가 어디로 갔는지 참으로 당신의 대한 믿음도, 신뢰도 고작 이것뿐입니다. 오 주님! 바라보아야 하는 대상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소서! 주님만을 신뢰하고 따르는 온전한 믿음으로 부어주소서! 주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면 저의 모든 불신을 넘어 정녕 주님의 저를 향하신 뜻을 확신하도록 믿음을 부어주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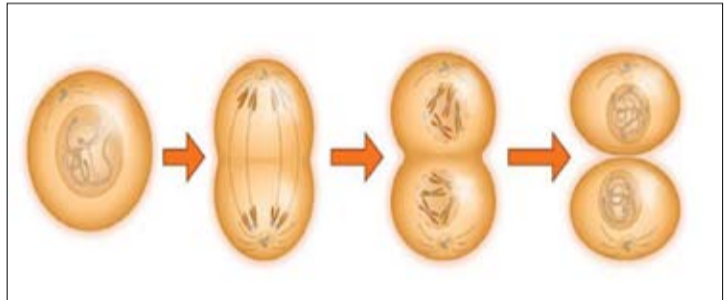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너를 잊으셨어? 부추기는 이 따귀의 소리를 과감히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을 허락주소서! 주님의 사랑의 확신 위에 온전히 붙들어 매소서! 이 내 마음이 또 다시 물러드는 환난에 부대껴서 주님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 된 마음을 소유하도록 주님의 일하시는 손길이 보여지도록 영안을 밝게 열어주소서! 믿음의 지팡이를 담대히 내밀어 흥해를 여는 모세의 길을 가도록 우복 서게 하소서~

이메일 : heenlee55@hanmail.net

유전자 보존의 법칙은 성경의 '종류대로' 개념과 정확하게 일치 종류대로 창조된 생명체들 외에 더 다른 생명체는 창조 안 돼

른다는 것이며 이것이 유전학의 기본 원리다.

유전자 보존의 법칙은 성경의 '종류대로'라는 개념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새로운 유전자가 생겨나지 않으므로 '새로운 종류'가 생겨날 수 없다. 이 현상은 인류가 존재하는 동안 계속해서 관찰해왔던 사실이다. 물론 화석기록을 통해서도 동일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화석에는 완전한 모습만 있지 진화의 증거인 어정정한 중간 단계의 모습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런 중간단계의 생물은 자연도태가 되기 때문에 진화는 불가능하게 되어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세포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된 이후 6000 여년 동안 '번성하라'는 명령에 따라 성장하고 분열해 왔다. 새롭게 창조된 생명체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진화는 없었고 유전학적으로도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기린의 조상은 처음부터 목이 긴 유전정보를 가진 기린이었어야 하며, 침팬지의 조상은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모습의 침팬지였고, 사람의 조상도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이었어야 한다. 유전학에 의하면 한 종류는 전혀 새로운 유전자를 가진 다른 종류로 바뀔 수 없다.

생물들은 타고난 유전정보를 물려주면서 생육(bear fruitful)하고 번성(multiply)하는데 교배의 한계 안에서만 가능하다. 즉 각각의 종류대로 각 종류 안에서만 자손을 낳을 수 있다. 각 생명체들은 자기 종류를 안다. 벌들이 수많은 다른 식물들의 꽃가루를

참가진다. 자기 종류를 찾지 못해 다른 종류에게 다가가는 동물도 없다.

그러나 종류가 고정되었다고 해서 모든 동식물들이 같은 모습이 아니다. 각 생명체들은 처음 창조된 조상 속에 들어있던 다양한 유전정보들을 재조합하기 때문에 종류의 한계 안에서 거의 무한히 다른 변이 가능성이 있고 결국 언제나 독특하고 유일한 생명체가 된다(지나 칼럼 참조).

생물체의 특징들 중에 가장 독특한 것이 자신을 닮은 개체를 만들어내는 번식능력이다. 흔히 볼 수 있는 번식 방법은 난자와 정자의 결합으로 새로운 생명체가 시작 되는 방법이다(유성생

망을 기는 경우에는 휘묻이를 통해 쉽게 번식이 되기도 한다. 감자는 눈을 따서 심어 새로운 개체를 만든다. 세포 한 개가 한 생명체인 박테리아의 경우에는 세포가 성장하여 둘로 나누는 방법을 취한다.

생물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번식을 하고 있지만 그 어느 경우에도 단 한 개의 세포도 원자나 분자에서부터 시작해서 만들어지는 경우는 없다. 난자나 정자도 이미 있었던 세포가 분열하여 생겨난 것이고 박테리아도 분열하여 새로운 개체를 만들지 한 생명체가 직접 원자들을 수집하여 새로운 세포를 창조하지 못한다. 따라서 지금 지구상에 존재

명령이 잘 실행되고 있다.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유전정보인 DNA가 실수 없이 복사되어야 한다. 세포의 모든 부품들과 기관들이 두 배로 늘어나야 한다. 그리고 이것들은 두 개로 나뉘어져야 한다. 과학자도 할 수 없는 이 모든 과정들이 세포 내에 아무 지시자도 없는데 이루어지고 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절대 명령이다. 반면에, 복사기는 복사기의 청사진을 수도 없이 많이 복사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어떤 복사기도 그 청사진을 가지고 다른 복사기를 만들지는 못한다.

종류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죄가 없었던 하나님의 형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었다. 이 사랑은 역사를 거쳐 변함이 없었고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아 생명을 포기하심으로 확증하셨다. 엄위하고 두려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이다. 이제 그 창조주 하나님의 최종 창조 목적인 바로 그 "사람"의 창조로 넘어가 보자.

이메일: mailforwschoi@gmail.com

미주 갈멜산기도원 특별 기도성회

강사



조성근 목사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강화·LA)담임
나사렛대학교 겸임교수/GST(신학생 훈련단체) 대표
개혁주의실교학회 이사/KWMA 운영이사
총신대학교(Th.M/Th.D.cand)/미국 ORU(D.Min)
www.galmelsan.or.kr / gstcenter98@gmail.com



장순직 목사
드림교회 담임
사단법인 민족복음화 운동본부 대표회장
한반도 회복 기도 운동연합 대표회장
CTS 운영이사
총회(합동) 부흥사회 증명회장

날짜 2014년 10월 23일(목) ~ 11월 6일(목)
※주일 성회는 없습니다

시간 새벽 5:30, 오전 10:30, 저녁 7:30

문의 213.382.1450

장소 3123 W. 8th St. #210 Los Angeles, CA, 90005
※한인타운 내 카타리나와 8가 코너에 있습니다

2014년 조성근 목사 부흥성회 일정

날짜	시간	주제
10월 1일	10:30	10월 1일
10월 2일	10:30	10월 2일
10월 3일	10:30	10월 3일
10월 4일	10:30	10월 4일
10월 5일	10:30	10월 5일
10월 6일	10:30	10월 6일
10월 7일	10:30	10월 7일
10월 8일	10:30	10월 8일
10월 9일	10:30	10월 9일
10월 10일	10:30	10월 10일
10월 11일	10:30	10월 11일
10월 12일	10:30	10월 12일

2014 하이어콜링 컨퍼런스 개최

12월 21-24일 샌디에고... 'The Light' 주제

2014 하이어콜링 컨퍼런스(Higher Calling Conference: HCC)가 12월 21일부터 24일까지 'The Light' 주제로 샌디에고 소재 Town and Country Resort & Convention Center에서 개최된다.

2014 하이어콜링 준비위원회는 지난 1일 오전 11시 KCCC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행사에 대해 소개했다.

박종술 목사(KCCC 예배사역담당)의 기도 후 권태산 목사는 누가복음 1:13-17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다음세대가 이어지는 집회가 되길 바라며 행사가 아닌 복음의 파워가 나타나는 집회가 되길 바란다.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일만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이 행사를 통해 세례요한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하며 기도로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예찬 청년은 "하이어콜링을 통해 자신의 삶의 목적과 의미가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영복 목사(준비위원장)는



하이어콜링 설명회를 마치고 기념촬영

"이 집회가 축복의 장소가 되고 참석자들은 축복의 근원이 되어 다음세대로 이어지길 소원한다"고 말하며 하이어콜링의 방향과 특징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HCC는 △1세의 기도와 후원으로 1.5세와 2세의 헌신을 만들어가는 집회 △거세지는 영적 도전을 감당해나갈 차세대 리더를 키워가는 집회 △미국의 부흥과 세계 선교를 이끌 선교의 주역들을 세우는 집회

△북미주 5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대학생 중심의 청년부흥집회 △중소교회와 청년대학생들이 함께 모이는 강소교회 연합운동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집회 특성에 관해 △이 집회는 잘 훈련된 스몰그룹 리더들이 전체 집회 기간에 기상부터 취침까지 함께 하며 진행하기에 실제적 훈련

아마존원주민선교에 9천불 전달

노스캐롤라이나 순회 선교부흥회 종료

노스캐롤라이나(NC)교회가 9월 한달 동안 진행한 순회 선교부흥회가 지난달 28일을 마지막으로 종료됐다.

이로써 이번 순회 선교부흥회의 헌금은 웨이빌 2,524달러, 달러 3,576달러, 그린스보로 1,370달러, 샬롯 1,530달러가 현금과 총 9000달러를 지난 25년간 브라질 아마존 원주민 선교를 해온 박동실 흥성에 선교사부부에게 전달기로 했다.

이날 설교를 맡은 최동갑 목사(랄리제일침례교회 담임)는 "선교가 왜 중요하며, 선교가 왜 하

나님을 좇으며 기쁘게 하는가"를 전해 큰 은혜를 끼쳤다. 특히 특별찬양을 맡은 동방현주는 찬양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놀라운 찬양을 불렀다.

이날 집회는 회장 나성균 목사 사회로 샬롯교회 서기 김기영 목사 기도, 임주창 목사 성경봉독, 김은주 목사 헌금기도, NC교협 총무 임대문 목사 광고, 감동옥 목사 축도 모 모든 순서를 마쳤다.

(기사제공: NC교협)



인디애나주에 위치한 그레이스 대학교에서 북한을 위한 기도회가 열렸다. 사진은 기도회를 마치고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는 모습

그레이스대학교 북한위한 기도회

2014년 초 시작, 매주 월요일 오후 4시

인디애나 주에 위치한 그레이스 대학교(총장 윌리엄 카티프 박사)는 북한을 위한 기도회를 10월 2일 오후 5시 신학교 강의실에서 가졌다. 북한을 위한 기도모임(리더 케시 엘리엇, 르네 핫세)은 지난 2014년 초 이 학교에 교환학생프로그램으로 방문 중인 한동대학교 학생들 주관으로 열린 북한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이 계기가 됐다.

리더인 케시 엘리엇 자매는 "필리핀에 있는 친구 집에 방문했을 때 그곳에 있던 북한노동자 수용소 탈출이야기를 담은 매거진을 통해 북한에 대한 마음을 품게 됐다"고 밝혔다. 케시 자매는 "작년에 북한에서 탈출한 여학생을 온라인을 통해 교제하게 됐고 그 내용을 기도모임에서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공동 리더인 르네 핫세 자매는 "고등학교 재학 때 북한에 대한 관

이 가능하다. △순장들을 통해 참여자들의 개인 영역까지 상담할 수 있고 전체 집회 외에도 50여명의 전문 분야강사들의 강이가 세션별로 진행된다. △전체 집회 진행은 영어로 진행되지만 한국어로 실시간 통역이 진행되고 한국어권을 위한 스몰그룹이 따로 준비되어 있어 한어권 청년들도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다. △전체적인 진행과 조직은 현장교회의 2세 사역자들이 중심이 된 Nexgen Pastors Fellowship이 중심이 되어 개교회에 필요에 맞는 프로그램들이 진행 된다. △하이콜링 그룹들이 참여하여 대학을 준비하는 것을 넘어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미래를 향한 꿈을 발견하도록 믿음을 가진 선배들이 도전한다. △다양한 선교단체 및 비즈니스기관들이 부스를 설치하여 다양한 정도를 접할 수 있다 등을 꼽으며 실제적으로 하이어콜링을 다녀간 청소년 중 750여명이 단기선교에 헌신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회의 주강사는 Jim Bob Park, Greg Stiers, 김동환 목사 등이며 50여명의 전문인 강사가 세워진다. 이 행사 등록에 관한 자세한 것은 www.gohighercalling.org에서 찾을 수 있다.

(이성자 기자)



크리스천 법률칼럼



지니 정 변호사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

미국 내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은 1천백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불안함에 살고 있을 불체자들에게 희망이 되어줄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관련 행정명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 행정명령이 11월 4일 선거 이후로 연기되면서 이민사회에 불안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선거와 정치적 계산 때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은 발표 시기는 늦었지만 연방의회가 행동하지 않으면 올해 안에 반드시 이민 행정명령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내 불법체류자들의 추방 유예와 추방 완화, 이들 가운데 자격을 갖춘 일부에게 영주권을 주는 방안들이 이민개혁 관련 행정명령

이민단속 우선순위 변경 등 DACA 수혜 55만명 기대

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핵심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첫째, 이민 단속의 우선순위 변경: 현재는 이민법 위반이나 경범죄 자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추방 대상이 되는데, 조직범죄나 중범죄에 연루된 이민자만을 대상으로 단속을 하도록 변경 요구.

둘째, 로컬 경찰에 구급중인 사람의 지문을 채취한 후 연방정부의 데이터와 비교해서 불체자인 경우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인계하는 Secure Communities Program의 폐지 또는 축소.

셋째, 2012년부터 시행중인 불체 청년 추방유예(DACA) 연장확대: 시민권자나 드림머 또는 DACA 승인자의 부모들에게도 추방유예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이 방안이 시행되면 500만명 이상이 구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합법 이민신청인의 동반 가족들을 영주권 취득계산에서 제외함으로써 영주권카드를 2배 이상 더 발급하는 이민개혁 조치도 단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임시 추방유예 DACA로 수혜를 받고 있는 55만 명 불체 청년들을 포함 미국 내 1100만 불체자들은 물론 이민사회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명령의 조속한 시행을 기대해봅니다.

▲연락처: jjounglawfirm@yahoo.com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그 통일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통일이 되도록 △북한 지도자들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게 그래서 더 이상 그곳이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곳이 되도록 등이다.

한편 이날 아세아연합신학교 교수인 조기연 목사와 오픈도어선교회 전명근 선교사가 방면에 북한에 대한 실상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가

졌다. 그레이스대학교의 북한을 위한 기도회는 매주 월요일 오후 4시 채플실에서 갖고 있으며 북한을 위한 기도모임 멤버들은 북한을 위한 기도제목을 받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그레이스신학교 김정은 박사(이메일 gtskoreanstudies@gmail.com)로 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샬롯장로교회-휴스턴한인장로교회

교환부흥회... 하나님나라 확장 동역

휴스턴한인장로교회(담임 송영일 목사)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나성균 목사(샬롯장로교회 담임)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부흥회를 개최했다. 이 부흥회는 양 교회의 담임목사 교환 부흥회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나성균 목사는 "이번 부흥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베드로가 배반과 회개를 통해 새로워져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게 된 22장의 말씀과 요한의 행동을 통한 이 시대의 참된 지도자로 세

움 받아 말세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힘쓸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말했다.

나 목사는 "이번 부흥회에 차세대 지도자 양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으며, 자라나는 후대들이 미국에서 주인의식을 갖고 미국 주류사회 지도자로 자라나게 돕고 여러 가지로 협력하는 두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리: 유원정 기자)

인/터/뷰

찬양사역자 동방현주 집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음악 되길"

"사역을 하면서 만나는 분들을 보면 제각각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사역의 색깔이라고 할까요? 찬양사역자들도 각자 사역의 컬러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어놓는 편하게 접하게 되는 스타일인거 같아요."

'사명', '사모곡'이라는 찬양으로 유명한 동방현주 집사, 그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깎아지른 스타일이라며 이런 모습이 사역현장에서 만나는 분들에게 많이 흡수가 되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

지난 5월 LA지역 집회를 열은 바 있는 동방현주 집사는 9월 13일 더텐트의 파킹랏 콘서트를 시작으로 28일 아틀란타구세군교회에서 집회를 가졌다. 집회 중 특별했던 것은 9월 13일 첫 번째 일정을 소화했던 더텐트의 파킹랏 콘서트와 21일에 있었던 LA 한인축제 기간에 열린 CCM 페스티벌이었다고 말했다.

"파킹랏에서 공연한다는 컨셉은 매우 특별하고 신선했습니다. 아마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특성이 가족중심이다 보니,



동방현주 집사

여기시간에 혼자 어디를 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한국처럼 대중교통이 발달이 돼 갈 데가 많은 것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파킹랏 콘서트는 가족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라 생각이 되요. 그리고 한인축제 때 찬양을 한곳이 장터가 열리는 곳이었어요. 수많은 교회와 공연장에서 집회와 공연을 해봐도 이런 모습들이 한국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것이고 이민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특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방문의 또 하나의 특징은 10월중에 출시되는 디지털음반 수록곡을 불렀다는 것이다. 아직 한국에서 출시도 되지 않은 찬양곡을 이민 한인커뮤니티에서 먼저 접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게 된 셈이다.

"이번 앨범은 디지털 싱글로 제

작했어요. 제 음성이 들어간 세 곡의 찬양곡과 그 찬양곡의 MR이 수록되었습니다. 특별한 것은 '광야의 감사'라는 찬양곡이에요. 이 찬양은 작년 10월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그린스보로구세군교회 집회 때 그 교회 사모님께서 만든 찬양이었어요. 이 찬양을 접하고 제가 음반에 수록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흔쾌히 승낙해주신 찬양입니다."

현주 집사는 '광야의 감사'라는 곡이 애착이 가는 것은 기도 중에 받은 하나님의 메시지 때문이었다고 한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와 같은

곳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아주 편하게 음반을 제작했지요. 그런데 두 번째 음반 제작할 때는 하나님께서 저를 재정비하시는 거 같았죠. 왜냐하면 음반제작 시기가 결혼과 출산의 시기였거든요. 미혼이었던 제자신이 가정을 갖게 하고 그리고 새 생명을 주시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상상이상으로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이러한 과정들이 제 인생에 그리고 제 사역에 대해 재정비하는 기간들이었습니다."

현주 집사는 또한 찬양사역자의 길을 가게 된 것은 또 하나의 모험

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리고 제 음악이 하나님의 기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들은 모두 다 다르고 특성이 있듯 찬양사역도 그렇다고 말하는 동방현주 집사, 그는 자신이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그야말로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는 편한 복장으로 매일 매일 만나는 사람들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편하게 대할 수 있는, 일상 속에서 편하게 누릴 수 있는 사역자가 되기를, 그리고 그 사역이 자신을 맞는 자들에게 전해질수 있

있는 모습 그대로 편하게 부르는 찬양스타일

10월 출시 디지털음반 이민사회에 먼저 소개

상황이 닦쳐올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기를 요구하셨다며, 그때 받은 메시지와 '광야의 감사'의 가사내용과 너무나도 흡사했다고 전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빨리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세 번의 음반을 출시한 동방현주 집사는 음반을 출시할 때가 됐던 마음가짐은 매년 달랐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 음반을 제작할 때는 이 음반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생각이

이자 도전이라고 말했다. 그건 바로 성악을 전공하고 클래식이란 장르로 활동했던 자신이 장르를 바꾸는 용기를 내야 했다는 것이다.

"성악을 했던 저로서는 음반제작 할 때 발성까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웬만한 용기가 없다면 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음반을 낼 때마다 제 목소리를 접하는 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매우 궁금해지기도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작업을 통해 나온 결과들이 하나님께

기를 소원한다고 말했다.

"미국에 올 때마다 느끼는 건 결코 이민생활이 녹록하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말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 곳에 사는 것이니 더욱더 그럴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곳에 저를 보내주시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목소리를 가지고 섬기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동방현주 집사 이메일: gloria5813@hanmail.net

(박준호 기자)

동부교계 게시판



미드웨스트대학교 학생 모집

미드웨스트대학교(총장 제임스송 박사) 10월 31일까지 입학생들에게 특별장학혜택을 제공한다. 모집학과는 ESL, 학사학위(경영학, 음악, 기독교교육학, 성서신학), 석사학위(기독교상담학, 기독교교육학, 교회음악, 영어교육학, 교역학), 박사학위(D. Min, 교회음악, 크리스천리더십) 전 과정이며 수시모집 한다. 단 유학생은 학기제로 온캠퍼스 강의 수강자에게는 1-20가 발급된다. 동 대학은 세인트루이스 본교와 워싱턴DC에 본교가 있으며 온라인으로 세계 어디서든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www.midwest.edu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 (636)327-4645

제 3회 PGM 세계전문인선교대회

제 3회 PGM 세계전문인선교대회가 10월 13일(월)부터 15일(수)까지, PGM 선교사대회는 10월 16일(목)부터 17일(금)까지 필리핀 디옥교회(담임 호성기 목사)에서 "Beyond Korean Diaspora"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4년에 한번씩 열리는 이 대회는 인근 각 교회와 세계 각처에 흩어져있는 선교사들이 참석하게 된다. 한편 설립 20주년을 맞는 필리핀디옥교회는 10월 12일(수) OICC연합예배와 임직식, 찬양축제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갖는다.

▲문의: (610)828-6760

퀸즈장로교회 "가을 새벽 부흥회"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 "가을 새벽 부흥회"가 10월 20일(월)부터 10월 25일(토)까지 열린다. 시간은 오전 6시. "가을 새벽 부흥회"는 예년에 열렸던 "주제 심령 부흥회"를 대신해 열리게 된다.

▲문의: (718)886-4040

뉴욕초대교회 입당예배

뉴욕초대교회(담임 김승희 목사) 입당예배가 19일(주) 오후 5시 새 교회당에서 열린다. 새 주소는 210-10 Horace Harding Expwy, Bayside. 입당예배 전인 18일(토) 저녁 8시에는 김삼환 목사(서울 명성교회 담임)를 강사로 부흥성회를 갖는다.

▲문의: (718)639-3021

뉴욕장로성가단 제18회 정기총회

뉴욕장로성가단(단장 손성대 장로) 제18회 정기총회가 10월 14일(화) 저녁 8시 퀸즈한인교회(담임 이규섭 목사) 연습실에서 열린다. 1부예배는 박용기 부단장의 사회로 말씀은 단목 이규섭 목사가 전한다. 2부 총회에서는 임원 선거가 있게 된다.

▲문의: (917)841-7552



뉴욕원로목사회 월례예배 후 야외에서 오찬을 가졌다.

뉴욕원로목사회 야외서 9월 월례예배

뉴욕원로목사회(회장 소의섭 목사) 9월 월례예배가 뉴욕우리교회(담임 조원태 목사) 초청으로 지난 30일 커닝햄 파크에서 열렸다.

이날 설교를 맡은 조원태 목사는 요한복음 2:1-11절을 본문으로 "싸인"이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평범한 물을 값있는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을 이루신 일로 제자들이 믿게 된 사건을 통해 오늘날 원로 즉 어른 상상의 시대, 네가티브의 상황 속에서 가치변화를 일으키는 축복과 건강한 삶을 사시는 원로목사님들이 되시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뉴욕우리교회는 원로목사

회원 가족들까지 초청해 정성이 가득한 풍성한 식탁으로 위로의 시간을 가졌다. 날씨가 좋지 않았지만 모처럼 야외에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게 된 회원들은 바쁜 이민 생활 가운데서도 많은 젊은 교인들이 봉사하는 활기찬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다.

뉴욕원로목사회 다음 모임은 10월 16일(목) 찬양교회(담임 허봉기 목사) 초청으로 오전 10시 30분 만나교회(담임 정관호 목사)에서 예배를 드린 후 미주미 식당에서 오찬을 갖는다.

(기사제공: 뉴욕원로목사회)



뉴욕권사선교합창단 제13회 정기연주회에서 단원들이 합창하고 있다.

"주의 자녀, 그 이름을 찬양하라"

뉴욕권사선교합창단 제13회 정기연주회

뉴욕권사선교합창단(단장 손옥아 권사) 제 13회 정기연주회가 지난 5일 오후 6시 은혜교회(담임 이순재 목사)에서 열렸다. 뉴욕권사선교합창단은 이 음악회를 통해 불우 이웃 돕기와 선교기금 모금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기연주회는 1부 합창 주의 자녀, 2부 합창 주의 임재하심, 3부 합창 주의 이름 찬양 등으로 나눠 총 15곡을 찬양했다. 양재원 지휘자는 "오늘 음악회에 우리의 기도를 담았 습니다. 찬양의 노래 말들이 기도문이 되고 곡조는 우리의 간구가 됐습

(유원정 기자)

뉴욕교협 41회기 회장단 후보등록마감

회장 이재덕 목사, 부회장 이종명 목사 등록, 감사 허윤준 목사 김영철 목사 등록

회장 후보 부회장 후보 평신도부회장 감사 감사



이재덕 목사
(뉴욕사랑교회)
교협 총무 역임, 현 부회장



이종명 목사
(뉴욕강장교회)
교협 부회장, 세기, 감사, 총무 역임



박영진 장로
(뉴욕성결교회)
현 교협이사회 이사장



김영철 목사
(순복음중앙교회)
현 교협 감사, 경조분과 역임



허윤준 목사
(뉴욕세명장로교회)
현 교협 감사, 총무, 영정분과 역임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승희 목사)가 제41회기 정/부 회장 및 감사 후보를 마감했다. 지난달 29일부터 시작해 10월 6일 정오까지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회장에는 현 부회장 이재덕 목사, 부회장 이종명 목사, 평신도부회

장에 현 교협이사장 박영진 장로가 각각 단독 입후보 했으며, 감사에는 현 감사 허윤준 목사와 김영철 목사가 후보로 등록했다. 교협 선관위원회(위원장 신현택 목사)는 6일 후보들의 서류를 심사하고 10일 공고했다. 향후 일정은

20일(월)에는 언론토론회(장소: 뉴욕신일교회)가 있으며 27일 정기총회(장소: 뉴욕사랑교회)에서 선출하게 된다.



뉴비전교회 설립 22주년 감사예배 및 임직식을 마치고 임직자들과 노회 목사들이 기념촬영 했다

"아름다운 교회위해 최선 다해 충성"

뉴비전교회 설립22주년 감사예배 및 임직식

뉴욕목사회 회장 황동의 목사가 시무하는 뉴비전교회가 설립 22주년을 맞아 감사예배 및 임직식을 가졌다.

지난 5일 저녁 5시 동 교회에서 열린 임직식은 뉴비전교회가 소속된 미국개혁장로교(ARPC) 북동노회 주관으로 안수집사 3명, 권사 6명 등 총 9명의 임직이 이뤄졌다.

황동의 목사는 "오늘 임직자들은 어려운 중에도 릴레이 금식기도를 하면서 헌신을 많이 했다. 교회가 아름답게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 충성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임직식에 앞서드린 예배는 황동의 목사 인도로 기도 김홍석 목사(뉴욕늘기쁨교회), 설교 방지각 목사(뉴욕효신장로교회 원로), 헌금기도 김진관 목사(뉴욕플라차처), 교회역사 김호상 장로의 순서로 진행됐다.

방지각 목사는 "하나님이 택하여 쓰는 사람"(삼상9:1-6)이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사람은 가정이나 직장, 교회에서 누구나 지도자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지도자는 첫째, 부모에게 효를 하는 사람 셋째,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넷째, 타인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이라야 한다"며, "그러나 신앙의 신비는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신다. 겸손했던 사울은 승승장구하면서 교만해져서 결국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직자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계속 쓰임받기 바란다"고 전했다.

임직식은 황동의 목사 사회로 서약, 집사안수기도, 권사임직기도, 공포, 권면 이용호 목사(ARP 한인인사부장), 축사 G. I. Gerald, 예물증명, 추가 배은경 성도, 감사인사 정용화 집사, 광고 김호상 장로, 축도 황동의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정용화 안수집사는 "믿음생활 잘 하라고 주신 직분으로 알겠다"며,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담임목사님을 받들고 교회 일에 충성하겠다"고 답사했다.

이날 임직자는 다음과 같다. △안수집사: 정용화, 박종인, 임정복 △권사: 김사라, 박명자, 유한나, 이미숙, 최덕주, 황명순. 뉴비전교회는 1992년 맨해튼 42가 램스처에서 16명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 1995년 맨해튼 32가에 교회 건물을 구입해 이전했으며 2000년 퀸즈 우드사이드로 이전했다가 2010년 현재 167가 노던 블러바드로 이전했다.

(유원정 기자)

이번 뉴욕교협 회장단 선거를 두고 여러 후보들이 자의반 타의반 언급했었으나, 각 부문에 단독 후보자를 뽑기로 일단 선거는 차분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총회 총대는 교역자 대표 1명과 평신도 대표 1명이 파송된다. 사모는 평신도 대표로 인정이 안된다.

또한 선거사전등록제를 실시한다. 10월 22일(수) 오후 5시까지 선거인 사전 등록을 해야 선거권이 부여된다. 총회 당일 등록하면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회비도 30달러를 추가로 내야 한다. 또 사전 등록했어도 당일 출석하지 않으면 역시 30달러 회비가 추가된다.

모든 회원교회는 40회기와 41회기 회비를 납부하면 선거권이 부여된다. 연회비는 120달러.

당일 가입한 교회는 이번에는 선거를 할 수 없고 다음 회기부터 할 수 있다.

(유원정 기자)



뉴욕목사회 임실행위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체육대회 10월30일, 총회 11월24일

7일, 뉴욕목사회 제 3차 임실행위원회

뉴욕목사회(회장 황동의 목사) 제 3차 임실행위원회가 지난 7일 오전 11시 빛과소금교회(담임 정순원 목사)에서 열렸다. 임실행위는 이날 체육대회와 정기총회 날짜 등에 관해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김영환 목사 인도로 기도 허윤준 목사, 설교 최창섭 목사, 축도 정순원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최창섭 목사는 에스라 7장 1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에스라의 결심에 대미한 목회자의 결심에 대해 설교했다.

최 목사는 먼저 밥 버퍼드 목사의 저서 "해프 타임"을 소개하며 "인생의 후반전을 잘 보내기 위해 전반전을 분석하고 진단하고 전략을 짜는 것처럼 목회자들의 후반전 목회를 위해 해프 타임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본문에서 에스라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귀환 시 여호와 의 율법을 연구해 준행하고 가르치는 일에 결심한 것처럼 목회자는 먼저 말씀 연구와 목상을 통해 깨달은 것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전하고, 둘째는 목회자 자신이 깨달은 율법을 준행하며 셋째는 율법을 많이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또 한 사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듯이 목회자가 한 사람을 잘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부 회무는 황동의 목사 사회로 한재홍 목사의 개회기도 후 이영상 서기의 회원점명에 이어 회의에 들어갔다.

황동의 목사는 8월과 9월 이단대책세미나와 '시가 있는 목회' 행사를 보고하면서, "이단들이 교회에 찾아와 온갖 위협을 하고 마켓에서 세미나 강사가 이단이라는 유인물을 뿌렸다"고 말했다. 황 목사는 "이단에 대해서는 목사회원 모두가 연합해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결정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체육대회: 10월 30일(목) △정기총회: 11월 24일(월).

한편 체육대회는 4차 임실행위원회도 겸해 제 43회기 총회에 가입할 신입회원 보고 시간을 갖기로 했다. 또 정기총회 전에 43회기 정 부회장 후보등록에 관한 공고도 하게 된다.

임실행위는 전희수 목사의 폐회 기도도 마쳤다.

(유원정 기자)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 국	\$100	유 럽	\$190
	캐나다	\$110	남 미	\$190
	한국및 동남아시아.....	\$190	아프리카.....	\$190

신청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_____	목사 <input type="checkbox"/> 영어: _____ 평신도 <input type="checkbox"/>
배달주소	_____	
전화/Fax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영어
전화번호/Fax	() ()	() ()
배달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신청일자: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 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 N 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나의 사랑, 파푸아 뉴기니 남태평양 산호섬(하)

3. 연합의 꿈

와이마 언어로 말씀하셔서 와이마교회를 세워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같은 은혜와 기적이 동남부 지역에도 번져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다. 은혜로 1년을 보냈다. 가능한 여러 교단의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 그리고 위에 나는 BTA지도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의견을 교환하고 함께 사역을 구상하게 되었다.

작년 8월, 중부지역 수도에 있는 BTA본부 강당에서 10여개 부족이 함께 모여 성경주요용어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이 훈련을 마치며 수료식에서, Kalo(칼로) 부족의 '모모로 키니' 현지인 번역자는 외쳤다.

"나는 지금까지 10여년이 넘도록 성경번역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번역에 중요한 용어(Key Term)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디. 이번 훈련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배웠습니다. 아직 열쇠는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작은 드라이버는 가지게 되었으니 우리 부족에게 돌아가서, 지금까지 번역된 성경을 다시 보면서 고장난 곳을 고쳐 나갈 수 있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

지요!"

그 이후, 매 3개월마다 10여개 부족의 번역위원회 위원장, 코디네이터,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정기모임을 갖고 감사, 기도제목을 나누며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작년 11월에는 미래를 위해 기도하면서 2014년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사역, 아니 해야 하는 일이 함께 모여서 말씀가운데 충전을 받고 격려하는 영적 수련회를 갖고 전체가 모여 우리를 찾는 컨퍼런스도 하자고 결정을 하였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 가운데, "하나님을 배우자! 함께 섬김을 통해서!"라는 주제로 8월24일 저녁부터 29일 아침까지 수련회를 가졌다. BTA 소속의 언어그룹의 번역위원장인 제임스 오푸가 운영위원장을 맡았고, 싸이몬 싸바이코(BTA언어디렉터)와 우리부부(SIL 소속 지역대표)는 두 선교단체의 장으로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했다. 그리고 조엘 피터(BS성서공회) 번역담당대표도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동참하고 있고, 수련회 강사로는 벤 아링가나 목사님, 연합교회 신학교 교수출신으로 우리 SIL Buka 지역대표를 초대하였다. 세 번역단체가 처음으로 연합하여 하게 되는 아름다운 동역, 하나 되는 작은 불꽃이 피어나고 있다.

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지난 4월 주일아침 예배시, 이곳 수도인 포트 모르스비, 선교부 사무실에서 일하는 릴리아 오비야 자매 부부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우리는 성경번역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러 부족 사람들이 섞여 있으니 당연히 공용어인 영어로 예배가 진행된다. 이 교회는 소그룹의 외국인도 있다. 피지 출신 목사님이 개척을 한 지 12년 되었다고 한다. SIL, BTA 성경번역선교사, 사무실 직원, 선교사숙소를 오고가며 선교사들을 위해 운전하는 형제가족, 우리의 소식을 구별하지 않고 작은 부분들을 나누어서 사역을 소개하고 간증하고, 교회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는 시간을 가졌다.

여기서 바다 빌라 자매는 이렇게 나누었다.

"나는 어려서부터 도시에서 살았어요. 내 말, 아니 우리말로 말하는 것도 창피하게 생각했어요. 공용어인 영어를 잘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닌 내 말, 우리 파이루마말로 나에게 말씀하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내가 도시에서 오래 살아서 나랑 별로 이야기하기 좋아하지 않던 아이들이 떠돌고 놀다가 내가 번역한 하나님 말씀을 읽으니 모두 조용하게 다가와서는 귀를 쫑긋 세우고 열심히 듣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몰랐지만 이제 내가 할 일을 찾았어요. 우리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부족사람에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남은 내 생을 주님께 드려 성경번역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길을 걸어가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자매 곁으로 나왔고 우리 감격으로 눈물로 기도하였다. 이 교회는 이 종족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들, 아니 말씀의 맛을 체험해보지 않아서 그 맛을 몰라서 기다릴 수조차 없는 사람들, 아직도 수많은 종족들이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와이마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대 주장이신 예수님,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입니다."

2003년 와이마 부족 신앙성경 봉헌예배시에 추장이 선언한 연설문 중의 일부이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남아있는 모든 종족에게 갈 수 있기를,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해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서, 이웃에게로 나아가는 날이 속히 오길 간절히 기도한다.

올해 2014년 7월20일 와이마 부족의 와이마 성경의 날에는 20여명의 목사로 드라마처럼 녹음된 "와이마 신앙성경 들리는(오디오) 성경"을 봉헌하였다!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드는 사람들, 성경을 손에 들고 감격해 하는 사람들, 말씀을 듣고 있는라고 불라도 대답이 없는 사람들... "오비야 빠까(대 추장=주님)! 짜바나모니오(당신을 찬양합니다)!"

(끝)

이덕신 선교사

이메일:ns-ds.kim@sil.org.pg

(4면에서 계속)

또한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강제노동과 수용소로 보내도록 했다.

이런 압박으로 인해 칼타고의 감독 키프리아누스(Cyprianus 200-258)가 순교를 당했고, 로마 주교 식스투토 2세(Xystus 2세 257-258)와 스페인의 타라고나 지방의 감독 투르투어스와 부 감독들이 대거 순교를 당해야 했고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은 유배형을 받았다. 당시 군대 내에 기독교인들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었다.

고로 충성스런 신자들 가운데 빠른 승진의 대열에 합류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다. 그러자 경쟁자들이 상대가 그리스도인임을 판사에게 고발하여 처형을 당하게 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고발을 당하면 판사는 군인 신자들에게 몇 시간의 말미를 줄 터이니 그를 제단 앞으로 데리고 나와 칼과 복음서를 놓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군인 성도들은 기꺼이 복음서를 선택하였다. 그리고는 순교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갔다. 어떤 지역에서는 군인 40여명을 색출하여 겨울에 강물에 들어가도록 명령하여 밤새도록 거기서 나오지 못하게 하여 얼려 죽이는 일도 있었다. 저들은 도무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같았다.

그런데 압박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이유는 발레리우스 황제가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이다. 황제는 전쟁에 패하였을 뿐 아니라 페르시아의 왕 사푸르(Sapor)에게 포로(260년)로 잡히는 치욕을 당했다. 로마황제 중에서 유일 무이한 일이다. 여세를 몰아 페르시아인들이 마르모라 해까지 침입함으로 동방의 방어진은 큰 위기를 맞이했다. 더 나아가서 고트족들은 다뉴브 강을 건너 북쪽 국경을 넘어왔고 다른 야만족들도 라인 강을 건너 제국 영토를 유린했다.

로마제국이 이처럼 불안하였으므로 영국 역사가 기번은 필립프스 황제의 천년제가 있는 후 갈리아누스 황제까지의 20년간(248-268)을 "치욕과 불운의 시대"라고 명명했다. 그 20년 동안 수많은 황제들이 일어났고 군인들은 조국을 방위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오직 후한 봉급을 줄 수 있는 황제만을 요구했고, 원로원은 한없이 무능했기 때문이다. 이런 국가적 고난은 위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시는 섭리일 지도 모른다. 사람이나 국가는 고난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제시했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신학자로서, 정치가로서, 언론인으로서, 칼빈주의 부흥가로서 교수로서 너무 알려진 반면에 목회자와 설교자로서의 카이퍼는 별로 알려지지 못했지만 "설교자로서 카이퍼"라는 이 연구는 새로운 시도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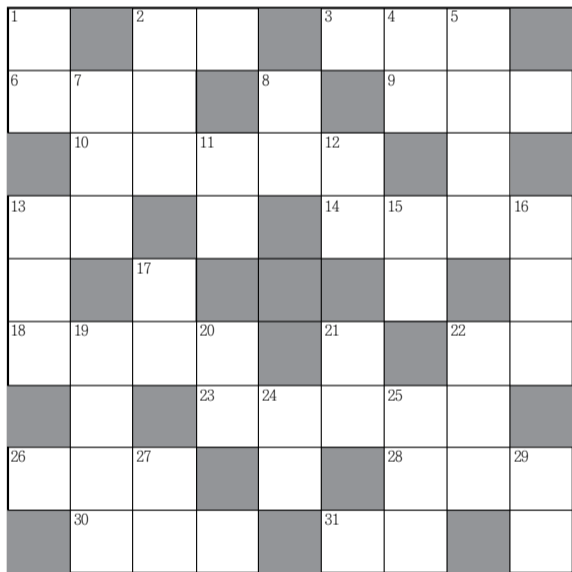
(다음호에 계속)

(7면에서 계속)

마치 16세기의 종교개혁이 강단의 회복에서 시작되었듯이 19세기 교회가 철저히 자유주의 사상으로 세속화 되었을 때, 카이퍼는 강단에서 불꽃처럼 타오르며,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힘있게 외쳤다. 그리고 그의 메시지는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 뿐 아니라 구원 받은 성도로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방향을

십자말 • Cross Word (55)

김기호 장로(본지 고문)



<가로 푸는 열쇠>

- 거룩한 백성(신7:6).
- 엘가나의 처 한나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낳은 아들(삼상 1:1).
- 어떤 형상을 임제적으로 새겨놓은 물건(시74:6).
- 다비다라 하는 여인의 이름을 번역하며...(행9:36).
-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 있는 유명한 폭포(지리 상식).
- 유다 세벨라에 있는 동네(수15:33).
- 예뻐서 다스리던 삼라의 고향(대상1:47).
- 물질적인 면과 정신적인 면 양쪽 다(명사)
- 옛날 높은 벼슬아치의 집에서 주인을 섬기던 사람(창 14:15).
-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루어지리라고 하신 약속의 나라(창19:6).
- 아프리카에서 제일 큰 강. 애굽에 있음(사19:7).
- 흙으로 토벌 구운 위에 오깃물을 얹혀 구운 빵(렘19:10).
- 신학을 전공하고 한 교회에서 목사를 도와 전도의 임무를 맡은 사람(기독교 상식).
- 부지런히 일만 하는 곤충(잠6:6).

<세로 푸는 열쇠>

- 한 족속의 맨 우두머리 조상(사43:27).
-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OOO 안존한 자는 명철하

나라(잠17:27).

- 음악에 맞추어서 춤을 추는 서양풍의 춤(삿21:21).
- 르우벤 지파의 성읍(민32:37).
- 각국(겔22:15).
- 예수, 사마리아 여인, 우물과 관계있는 동리(요4:5).
- 유다 서남부 평야에 있는 유다에 속했던 땅(수15:42).
- 사무엘이 낳고 죽은 땅(삼상7:17).
- 소제에 드리는 제물(레6:15).
- 미디안의 두 방백 중 한 사람인데 기드온의 사자가 그를 포도주 틀에서 죽였다(삿7:25).
- 가족으로 만든 신(겔16:10).
- 부모나 조부모를 받들어 모심(왕상1:4).
- 어떤 계기로 그 전까지의 생각을 뒤집듯이 바꿈(고사서어).
- 책이나 책무를 면함(에2:18).
- 물건 만드는 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삼3:9).
- 화본과에 속하는 1년생 풀(마13:39).
- 고마운 뜻을 상대자에게 나타내는 인사(눅17:9).
- 룻의 시어머니(룻1:20).
- 폭력 또는 협박으로써 남의 것을 빼앗는 도둑(고후 11:26).
- 병든 몸(눅14:13).

십자말 정답



15년간 성지순례를 인도해 온 이스라엘 알리아 선교회(I.A.M)의 KNOW-HOW와 파이오니아 성지순례 전문여행사(SINCE 1986년)의 풍부한 경험이 합쳐진 명품 순례

이스라엘, 요르단, 터키, 그리스, 로마 성지순례팀 대모집



<2015년 봄 성지순례 일정>

- 2015. 2.16~2.24 - 이스라엘 전 일정 순례 (8박9일) \$2,299
- 2015. 2.16~2.26 - 이스라엘+요르단3개국(10박11일) \$2,699
- 2015. 3. 2~3. 9 - 터키+소아시아 일정(7박8일) \$1,999
- 2015. 3. 2~3.12 - 터키, 그리스 2개국(10박11일) \$2,699
- 2015. 3. 2~3.14 - 터키, 그리스, 로마 3개국(12박13일) \$3,199

(※ 위가격은, 15명 이상 LA 출발 기준이며, 금년 9월-10월 동독시 가능한 가격입니다. 비행기 요금에 따라 가격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차별화된 명품 성지순례, 옵션이 없는 순수한 성지순례, 기독교 역사적, 선교적 관점으로 진행되는 순례, 교회들이 원하는 맞춤형 순례, 젊은이들을 위한 단기순례 및 정탐, 한국 성지(선교지)순례 등등..

* 특별혜택사항 : 항공, 호텔, 버스, 음식(한식포함), 편안하고 여유있는 스케줄, 현지 한국 가이드의 질적 우위와 합리적이고 저렴한 가격의 경쟁력

* 성지순례 및 항공권 문의전화번호: 714-351-0124

* 성지순례 프로젝트 팀장: Paul 최 목사(15년간 성지순례 인도)

* E-mail : choigh1115@gmail.com

* 모든 항공권 가격 최저 보장!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바로 확인시켜 드립니다!!!

AUTHORIZED adidas DISTRIBUTOR

태권도 검도 무술장비 전문업체

DYNAMICS 다이내믹스

www.dynamicsworld.com

교회 로고프린트 티셔츠50벌 이상 \$5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타월
광고배너 / 교회배너 제작

T. 516.354.8484 F. 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www.laguesthouse.com

LA 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LA GUEST HOUSE
Olympic Blvd.

김스전기 한식제민

965 Fedora St, Los Angeles, CA 90006 (올림픽 김스 전기앞)
Tel, 213.487.5446 Cell, 213.663.9181 Email, laguesthouse@live.com

물론교는 과연 기독교인가?

물론교에 접해 신앙의 혼돈이 생기신분
물론교에 관해 알고원하시는 분

상담 및 소그룹 클래스, 세미나

문의 정 일 국 목사

- 전 화: 714-833-2345
- 이메일: miranjung7@gmail.com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배달 / 타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세계로 뻗어가는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 L.A. :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E-mail: la@chpress.net

■ N.Y. :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세계로 뻗어가는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 L.A. :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E-mail: la@chpress.net

■ N.Y. :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신앙의 본질회복을 통한 미래목회 제언(4)

-예배가 무너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다



전 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교회)

VIII. 훈련과 복종의 열매로서의 전도의 회복

관계전도, 혹은 인격전도 등의 방법론이 중요하지만 전도의 본래적 원리는 가서 전하는 직접전도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어찌 보면 과거 한국에서 행했던 1대1 노방전도 스타일의 전도방법이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순종차원의 전도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분명한 회복이 필요하다.

전도는 사명에 대한 명령과 복종이다. 관계전도와 같이 오랜 시간 숙성하여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

당시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했던 역사를 다시 회복시키는 데, 아주 중요한 핑계거리가 되었던 것이다.

전도는 강제적인 훈련과 복종의 열매, 그리고 영혼의 추수에 대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영혼을 위한 수고와 헌신이 값지게 보상되는 것으로 교회 자체를 역동성 있는 사명공동체로 회복하는데 분명하게 강조될 내용이다.

XI. 주일성수 신앙의 회복

오순절에 교회는 "매일" 모여 예배를 드렸으나(행2:46), 후에는 안식일을 예배일로 정하고 회당 예

의 핵심적인 신앙이다. 주일 성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이다. 구제 봉사 전도 선교 등 중요한 일들은 모두 사라지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영원토록 계속된다고 사도 요한이 증언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찌어다"(계 5:13).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찌로다 아멘"(계7:12). 이것이 하늘에서 들려지는 영원한 안식일 예배 또는 영원한 주일 예배의 모습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성수를 무시하고 등한시하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은 구약의 명령이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들은 신약시대에 와서는 모든 날이 주의 날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다. 환경에 따라, 주일 대신 금요일 오후나 저녁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상관없다고 말한다. 이와 같이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의도를 알지 못하는 무지한 존재들이다. 결국, 주일신앙이 희미한 성도들은

1대1 노방전도로 하나님 은혜 바라보는 순종의 자세 회복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주일 성수 가르쳐

하는 부분도 있지만, 가장 우선적인 것은 사명의 명령에 대한 즉각 순종함이 전도의 시작이 된다. 또한, 전도는 훈련이다. 훈련은 조건이 없다. 조건과 상관없이 훈련은 따라가면, 열매를 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전도는 부담스러운 것이 당연하고, 강제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마음의 감동만을 따라 전도하려는 경우는 거의 영혼의 열매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고상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환상의 유혹'이 복음을 가로막고, 말씀대로 입을 열어 전하는 증인의 삶을 방해하고, 전도하지 않는 삶을 그럴 듯하게 합리화 시켰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은근히 입으로 예수를 전하는 것을 무식한 방법이라고 무시하고, 말보다 행위로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물론, 행위의 선함이 중요하다. 그러나 예수님을 기쁘게 자랑하고 고백하는 것에 비례해서, 인격과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이지, 우리가 행하는 선한행위의 완전함으로 상대방을 복음에 굴복케 하겠다는 생각은 굉장한 교만이며 무모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그런 관점들이 사도들이

배에 참여하였다. 그리스도인들의 교회가 분리된 공동체로 형성되면서, 특별히 유대 공동체를 정죄하며 분리된 후에는, 주일이 예배일이 되었다.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이 명령은 거룩한 백성에게 주어진 것이었다 (Remember the sabbath day, to keep it holy. 출20:8).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요4:24). 예배는 곧 성령이 아니시면 형식에 불과한 예식이다. 예배는 성령으로만 성공한다. 성령의 역활은 예배자를 주 안에서 하나님께 하 시며 교회를 하나님께 하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한다. 주일을 성수하는 이들에게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예배자를 주 안에서 하나님께 하 시며 교회를 하나님께 하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한다. 주일을 성수하는 이들에게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예배자를 주 안에서 하나님께 하 시며 교회를 하나님께 하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한다. 주일을 성수하는 이들에게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예배자를 주 안에서 하나님께 하 시며 교회를 하나님께 하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한다.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에게 가장 귀중하고 가장 아름다운 일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배의 제사를 드리는 일이다. 그 것보다 더 귀중하고 더 아름다운 일은 이 세상에 없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주일 성수의 신앙"은 성경의 중심적인 신앙이고 기독교

보라. 주일을 되는대로 지키므로, 삶도 되는 대로 뒤죽박죽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비통한 현실을 보게 된다.

교회에서는 계속적으로 '정한 시간-정한 장소'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초점을 맞추어 주일성수를 가르쳐야 된다. 주일 성수는 신앙에게는 생명과 같은 일이며,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진다고 할 때, 주일날의 분명한 예배생활은 교회를 세우고 성도자신의 신앙과 삶을 분명하게 세워가는 축복의 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주일은 내가 섬기는 본 교회에서 드러지는 것을 신앙의 확고한 기준으로 삼도록 가르쳐야 한다. 자신이 섬기는 교회와 자신에게 영적 양식을 주시는 담임목사가 불분명한 사람들의 신앙을 보면, 결국 영적결핍의 과정을 지나는 것을 보게 된다. 본 교회에서 섬기는 담임목회자에게서 말씀을 들으며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때, 영육간의 기초가 분명한 삶 위에 반드시 은혜와 축복을 더해주시고, 그의 섬기는 교회도 하나님의 칭찬과 기쁨의 대상이 될 것이다.

(계속)

인/터/뷰 조복섭 사모(C.W.M 대표/실로암교회)

복음 들고 달려온 27년...생명 있는 날까지 감당

매년 한국과 미국에서 두 차례씩 전도훈련 실시하고 있는 조복섭 사모. 올 가을에도 어김없이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전도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조 사모를 통해 전도훈련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참석자들의 편의를 위해 골고루 지역을 옮겨가며 실시하고 있는 2014년 가을 정기훈련은 한국은 부산과 평택지역에서, 미국은 LA 동부지역 글로벌 선교교회(담임 김지성 목사)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장소를 제공해 주신 글로벌교회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를 표했다.

C.W.M(Christ Witness Mission)은 전도훈련을 통해 전도자를 세우고 세계 각 나라로 전도지를 만들어 보급하면서 훈련하고 온 교회와 CWM 전도훈련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 지역마다 바울 전도단이라고 하는 전도단을 세워 가는 것이 C.W.M의 사명과 목적이라고 설명하는 조 사모. 현재 이 바울전도단은 한국과 미



우리 목사님이, '그러지 말고 교재 하나 만들어서 교인들 훈련도 좀 시키고 그래서 같이 전도하러 다니면 좋지 않느냐?' 한 것이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 훈련하게 됐고, 자주 다른 교인들도 참석하게 돼 아예 선교회를

게 구매를 받지 않지요. 처음 시작할 때 쓰던 전도지를 지금도 그대로 만들어 쓰고 있으니까요"라고 의외의 이야기도 들려준다.

C.W.M 전도훈련은 영어와 스페인시 전도훈련이라고 한다. 멀리 단기선교를 가지 않아도 우리 주위에 많은 전도 대상자들이 있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그래서 최소한 4분 동안에 올바른 복음을 제시하도록 훈련하고 있다. 이렇게 복음을 제시할 때 영적부분과 확신부분으로 나눈다고 한다. 일단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도와주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 내가 받은 복음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의 복음인지 알게 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그 복음을 받은 이들이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는 확신과 감격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을 생각하며 훈련을 실시하지만 이 모든 것 위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훈련하는 것은 '주님의 임재'라

"엄청난 사랑 받았다는 확신과 감격 있어야"

국, 아프리카 등에 약 50여개가 세워졌고 태국에도 지부가 있다. 이러한 특별한 사역을 하고 있는 동기가 있었는지 조 사모에게 묻자 자신의 간증을 들려준다.

"우리 집안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꼭 예수 믿어야만 천국 가느냐고 하던 저였 습니다. 그런데 제가 5대째 예수 믿는 집안으로 시집을 갔지요. 저를 은혜 받게 하려고 우리 시어머님께서 기도도 많이 하시고, 어느 날은 택시를 문 앞에까지 불러다 세워 놓고 뺑-뺑-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어느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결국 거기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신앙생활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어느 날 기도 중 영적인 체험을 통해 천국과 지옥의 존재에 대한 확신 갖게 되었어요. 그 후 가족과 친척, 주위의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게 되었죠. 이런 오기 전까지 세브란스 병원을 다니면서 전도하다가 왔고, 미국에서도 어떻게 전도 좀 잘 해볼 수 없을까 해서 어디 전도훈련 같은 것 좀 하는 데가 있으면 가서 배웠으면 좋겠다 생각하던 중에

오픈하게 된 것이죠..." 1989년 본인의 교회에서 시작했던 전도훈련이 이제는 교파를 초월한 C.W.M이란 기관이 됐고 50여개의 지부를 형성하게 됐다.

이 전도훈련에서는 각 전도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대처할 수 있도록 4분, 20분, 40분 이상도 분명하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대화를 나누다 마음이 열린 듯 하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고 결신의 자리까지 인도하도록 훈련한다.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하기에 '예수님 영접은 기본이다'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한다.

그러나 이렇듯 전도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쉬운 것은 아니다. 점점 더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아 전도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하는 조 사모는 "그러나 한 영혼이 소중하다는 것을 잘 알기에 포기할 수가 없지요. 사실 그래서 C.W.M 전도는 관계전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시대에 따라 전도방법도 개발해야 한다고도 하지만 그런 것에는 크

며, "이 훈련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누리게 되고 이 사랑을 전하기 위해 전도하게 되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훈련 끝에 '상급 바리새자 말고, 내 기쁨 얻기 위해 하지 말고 내가 축복받기 위해 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 전해주자'라고 외친다고 한다.

C.W.M에서 제작되는 전도지는 교회안 내용이 아니라 분명한 복음제시 내용이 들어있는 전도지다. 뿐만 아니라 '내 증인이 되라'는 교재가 있고 성경공부식 C.W.M 전도훈련교재를 학생용과 리더용으로 만들었는데 이 교재는 전도훈련 외에도 전제 교인들에게 8주 동안 공과공부 형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고 또한 이 교재들은 세계 각 나라 말로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귀띔한다.

이렇듯 조복섭 사모는 전도사명을 생명처럼 여기며 27년 동안 달려오고 있다. 올 가을 전도훈련은 글로벌선교교회에서 20일(월)부터 22일(수)까지 진행되며 참가비는 50달러(교재, 전도지, 기타 자료) 자체한 것은 (562)480-6975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미주 및 전세계의 한인교회, 목회자, 교우간 교류가 가능해 집니다. 매년마다 한인교회 주소록이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2015년 해외 한인 교회 주소록 발간 안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사업체 위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본사에서 2015년 을 맞이하면서 보다 나은 주소록을 발행코저 하오니 지금까지도 많이 협조해 주셨사오나 정확한 주소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속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배전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 음

- (1) 미국(전미주)을 중심으로 해외(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 있는 교회(교단명)와 기독교 기관을 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정확하게 수록한다.
- (2) 각 지역별로 목차(교회명, 기관명, 기관장<인명>)를 수록한다.
- (3) 수주된 광고는 반드시 광고주의 디자인 확인 후 해당 리스팅 난에 게재한다.
- (4) 한국은 광고를 원하는 교회와 기관 또는 사업체에 한하여 별도로 리스팅한다.
- (5) 리스팅 접수마감 2014년 9월 30일
광고 접수마감 2014년 9월 30일

발행 : 미주크리스천 신문사

유료광고안내	돌출(표지)	3.5cm × 4.5cm	\$600.00
	전면칼라	17cm × 24.5cm	\$3,000.00
		표지내면(2면, 3면)	\$3,500.00
		Back 면	\$2,500.00
		Back 면 내면	\$2,200.00
		Inside	\$2,200.00
	*전면칼라일 경우 Inside에 흑백을 넣어줌		
	전면흑백	15.5cm × 23.5cm	\$1,000.00
	전면 1/2	15.5cm × 5.8cm	\$600.00
	전면1/4	15.5cm × 5.8cm	\$350.00
		7.7cm × 11.7cm	
	전면1/8	15.5 × 2.8cm	\$250.00
		7.7cm × 5.8cm	
	돌출 Listing	Listing size	\$100.00
	축하광고(사진삽입)	3.7cm × 7.5cm	\$200.00

무료리스팅신청서	① 교회(기관)이름	한글 : 영문 :
	② 교회(기관)주소	
	③ 교회전화 & 팩스	Tel.() Fax.()
	④ 목사, 전도사, 기관장	한글 : 영문 :
	⑤ 사택주소	
	⑥ 사택전화 & 팩스	Tel.() Fax.()
	⑦ E-mail Add.	
	⑧ Web Add.	
	⑨ 소속교단(정확하게)	

*위의내용을 편지나 팩스 또는 E-mail : dir@chpress.net 로 보내주십시오.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 ny@chpress.net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